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개화민족주의 (1896-1900):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오 인 환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개화민족주의 (1896-1900):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

지도교수 최 정 운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오 인 환

오인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월

위 원 장 장 인 성 (인)
부 위 원 장 전 재 성 (인)
위 원 최 정 운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구한말 개화담론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아왔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당시 개화담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개신교 계열 신문인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윤리(Protestant Work Ethic)가 조선인들의 유희유식(遊依遊食)을 비판한 ‘조선병’과 생업(生業)을 가져야 한다는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결합되어 나타났다는 점을 비교분석을 통해 드러낸다. 한국 민족주의의 큰 두 가지 흐름을 저항민족주의와 개화민족주의로 분류할 때, 여기서 분석되는 개화담론은 1907년 이후 안창호에 의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개화민족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천주교의 사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점과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로 개신교 세력과 인사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분석했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윤리적, 내면적 개화를 통한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한 개신교 세력의 개화담론을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으로 명명하였던 케네스 웰스(Kenneth Wells)의 연구 또한 개신교 세력과 인사들의 활동과 그 활동의 시기적 정치성, 비정치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본질적으로 이미 당시의 개화담론이 자유주의적 정치적 지향을 가졌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조선에서 천주교가 직접선교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한 간접선교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였고 미국 정부 또한 일정한 도움 이상의 도움을 개신교 세력에게 주지 않았다. 또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나는 윤리적 강령은 이미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결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선교사들의 연례회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이미 방향이 의식적으로 설정된 개신교의 윤리적 강령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이라는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그것이 <독립신문>의 ‘조선병’, 그리고 생업의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한 개화담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임을 주장한다.

물론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생계를 구하는 법’, 그리고 ‘정부의 직분’에서 생업을 가져야 함과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점을 기억하면,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만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게으름, 술, 담배, 노름과 조흔과 축첩 등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각 사람이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점과 여성 및 신분차별과 위생문제에 대한 강조 등 『서유견문』에 나타나지 않는 개신교 세력에서 강조한 여러 이슈들이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상대적 영향력은 충분히 강조될 수 있다. 『서유견문』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서구 문명의 제도와 생업에 대한 언급은 노동윤리에 대한 특별한 강조나 조선 인구의 대부분이 유의유식하는 것이 조선의 가장 큰 재앙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드러나는 노동윤리와 각종 개인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주장들은 조선 인구의 대다수가 생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독립신문>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조선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화담론으로 나타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는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을 통해 나타났던 당시 개화담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이후 개화민족주의라는 하나의 민족주의 흐름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요어 : 조선그리스도인회보, 독립신문, 프로테스탄티즘, 노동윤리, 조선병, 개화담론, 개화민족주의, 윤리적 민족주의

학 번 : 2009-2281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	3
3. 기존연구	6
4. 연구방법 및 자료활용	10
5. 논문의 구성	12
II.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14
1. 조선 후기 천주교의 도입과 종교윤리	15
2. 구한말 천주교의 선교정책 : 정교분리와 직접선교	19
3.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특징	23
III.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개화민족주의	26
1. 구한말 개신교의 선교정책 : 정교분리와 간접선교	26
2.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반영된 선교 정책적 결정	31
3.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발간	35
4.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구한말의 실태	39
1) 게으름과 생활력의 결여	39
2) 민족적 자립심 결여	42
3) 술, 담배, 노름	44
4) 축첩, 조혼, 무명잡세(無名雜稅)	47
5.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의 처방윤리	49
1) 개인윤리	49
(1) 생업(生業)의 노동윤리	49
(2) 학문과 교육	52
(3) 안식일 윤리	54
(4) 술, 담배, 위생	56
2) 사회적 관습	60
(1) 제사	60
(2) 혼인제도 : 축첩 및 조혼금지	62
(3) 신분차별 금지와 여성교육	64

IV. <독립신문>에 나타난 ‘조선병’과 개화민족주의	67
1. <독립신문>의 발간	67
2. <독립신문>의 ‘조선병’: 유의유식과 노동윤리	71
3. <독립신문>에 나타난 개화담론	77
1) 생애(生涯)하는 것	77
2) 학문과 교육	81
3) 사회적 관습	84
4) 술, 담배, 위생	87
5) 여성 및 신분차별	89
V.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조선병’, 그리고 개화민족주의	91
VI. 결론	99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표 목차

<표1> 천주교의 영세규정과 개신교의 세례문답 비교	25
<표2> 1896년 무렵 발간된 구한말 신문 비교	37

I. 서론

1. 문제제기

안드레 슈미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제국 사이에 끼어있었던 한국이 어떻게 민족을 다시 스스로 인식하고 재생(再生)하였는지를 1895년부터 1919년까지의 당시 신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 연구¹⁾에서 인쇄 자본주의와 자국어로 된 대중신문의 등장을 통해 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논지를 끌어와 자신의 연구의 기반으로 삼는다.²⁾ 슈미드는 연구를 통해 당시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식민주의가 같은 문명개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민족에 대한 지식의 형성이 일본을 통해 도입됨으로써 민족주의 뿐 아니라 식민주의의 형성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신문들에서 나타나는 문명개화론의 도입을 분석하면서 일본에서 유입된 문명개화에 대한 담론이 민족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상반된 주장의 공통된 전제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드레 슈미드의 한말 언론분석은 특히 식민지 전후 시기의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주요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모두 동일한 문명개화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가 분석한 시기의 구한말 시기의 언론에서는 개신교 계열에서 출간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연구의 초점이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력보다는 언론에 나타난 한국 민족주의의 담론 형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문들이 그의 연

1)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희숙 옮김, 나남, 2002, pp.59-63. 여기서 앤더슨은 근대에 발생하게 된 새로운 문화적 개념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신문과 성서와 같은 인쇄물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인쇄자본주의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드레 슈미드는 구한말 개화담론의 형성과 전파과정을 당시 언론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2) 안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옮김, 휴머니스트, 2007, pp.56-57.

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는 민족주의 담론 연구에 있어서 개신교의 위치, 그리고 개신교가 민족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드러내는 지점일 수 있다. 단적으로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나, 1898년에 창간된 제국신문은 언급되고 있는 반면, 1897년에 창간된 개신교 계열의 두 신문은 조금도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한말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당시의 민족주의의 흐름을 위정척사사상, 동학사상, 그리고 개화사상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인식³⁾에서도 또한 당시 성경보급, 의료, 교육사업, 신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화담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개신교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개신교의 한글성경 번역은 1870년대 말에 이미 시작되었고⁴⁾, 1880년대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개신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나갔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1897년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이 창간된 것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후 나타난 본격적인 문명개화 담론에 개신교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구한말 초기 개신교가 1870-80년대부터 문명개화 담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면 그 영향력이 문명개화론에 기초하여 발전한 한국 민족주의에 반영된 결과는 무엇인가? 또한 초기 개신교의 개화담론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말 민족주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구한말 초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의 ‘조선병’ 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같은 개화담론은 이후 개화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의 큰 흐름에 합류되어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당시에 발간되었던 감리교 계열 순한글 신문인 <조선그

3)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사상과 현실』, 청계연구소, 1989, p.370.

4)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스목사와 의주출신의 이용찬, 서상륜 등과 함께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의 번역을 수행한다.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pp.48-55. 참조

리스도인회보>⁵⁾와 서재필에 의해 창간된 <독립신문>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조선병과 개화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문헌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를 진행한 케네스 웰스(Kenneth Wells)의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⁶⁾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이를 통해 한국 개화민족주의의 형성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역할을 재평가해볼 것이다.

2.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금욕주의가 노동의 합리화, 모든 삶의 영역의 합리적 통제를 가져왔고⁷⁾ 이것이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정신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작동했다는 것⁸⁾을 지적한 바 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로서 베버의 주장은 고전의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실상 베버의 연구를 읽어보면 어떠한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그 이론적 틀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베버는 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직업적인 모습의 차이에 착안한 것을 시작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목회적 권고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 변용되어갔는지, 그리고

5) 감리교 계열신문인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장로교 계열신문인 <그리스도신문>중에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로 먼저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그리스도신문>보다 두 달 먼저 창간된 최초의 개신교 계열신문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 부분 두 신문의 내용이 중복되기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신문>을 참고하여도 당시 전반적인 개신교의 개화담론을 살펴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밝힌다.

6) Kenneth Wells,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p.9.

7)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 전성우 옮김, 나남, 2008, p.81.

8)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현욱 옮김, 동서문화사, 2009, p.195.

그것이 자본주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형성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 또한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당시 개화담론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렇게 형성된 개화담론이 이후 나타나는 개화민족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개념을 제시한 케네스 웰스(Kenneth Wells)를 들 수 있는데, 웰스는 내면적, 윤리적 차원의 개화를 교육을 통해 이룩해야만 조선 민족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개신교 계열의 윤리적 민족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However, the writings and activities of one group of Protestants indicate that Protestants did direct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at least one stream of nationalism: *self-reconstruction, or ethical nationalism*.....among Protestant reformers the idea gained currency that **inward, spiritual and ethical strengthening was required before outward, material strength could be achieved**.....**Self-reconstruction of individual and national character was more than a nationalist strategy; it was the spiritual task of any nation, whether independent or not.**⁹⁾ [강조는 인용자]

웰스가 말하는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란 내면적인, 혹은 윤리적인 차원의 정신적 개조가 조선이라는 민족국가(nation-state)를 건설하는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구한말 조선이라는 민족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힘을 기르는 것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정신적인, 윤리적인 자기개조(self-reconstruction)가 무엇보다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웰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적 민족주의를 다른 말로 자기개조(self-reconstruction) 민족주의라고도 지칭하는데, 내면적인 자기개조가 이 개념에서 강조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9) Wells, 1990, pp.9-10.

베버가 분석한 서구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도치 않은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웰스는 구한말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상당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 민족주의에 하나의 흐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윤리적 민족주의, 자기개조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축약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웰스는 1896년에서 1937년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윤리적 민족주의의 모습을 시기별 사건과 기독교 세력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추적하고 있다.

웰스의 윤리적 민족주의는 한국 민족주의에 개신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선행연구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내면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자기개조가 민족국가의 문명개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중요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1897년부터 1937년까지의 개신교 세력의 활동의 시기적인 정치성과 비정치성을 묘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개신교 윤리가 당시 조선의 개화담론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서술은 주로 실제 개신교 인사나 개신교 계열 단체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개신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정치적으로도 활발했던 시기와 다소 비정치적인 성향을 띠었던 시기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개신교 민족주의 인사(人士), 혹은 활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웰스는 개신교 민족주의자와 단체들의 활동과 모습에만 천착한 나머지, 개신교 윤리가 당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던 개화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과 그렇게 형성된 개화담론이 개화민족주의라는 일반적인 민족주의의 흐름으로 지속되어 일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신교 인사와 계열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개신교의 영향력에만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웰스와 당시 민족주의와 개화담론에 미친 개신교의 영향력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웰스가 개신교 계열 단체와 주요 인사들의 활동과 그 정치성, 혹은 비정치성을 중심으로 표면적이고 직접적

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친 한계를 지적하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서 드러나는 노동윤리, 그리고 ‘조선병’과 관련된 개화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독립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개화담론의 형성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당시의 개화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형성된 개화담론이 추후 개화민족주의로 합류되면서 일반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연구

윤리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케네스 웰스이지만, 이 같은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내용적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개신교의 수용과 그로 인한 윤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집중한 이로 이만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한말 기독교 수용사 연구¹⁰⁾와 한말 기독교가 민족운동과 민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¹¹⁾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구한말 당시 기독교의 수용과 성장, 그리고 민족운동과의 연계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만열은 개신교의 초기선교전략이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어, 한글의 보급, 그리고 술, 담배, 아편, 축첩, 미신탈파, 혼인과 장례의 개혁으로 이어졌으며 한말 개신교들의 사회의식이 초기의 반봉건-자주-항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만열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이로 또한 조영렬을 들 수 있는데, 조영렬도 사학자의 관점에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개신교도들의 사회개혁사상을 조명한 바 있다.¹²⁾

10)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11)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90.

12) 조영렬, “초기 한국기독교도들의 사회개혁사상 :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기사 분

이 외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그리스도신문> 등 19세기 후반의 개신교 계열 신문과 이와 관련해 <독립신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국문학 분야에서 이뤄져왔다. 대표적으로 김영민과 옥서준을 들 수 있는데, 김영민은 근대 계몽기에 선교를 위해 발행되던 개신교 계열의 신문들이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영민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최초로 단형 서사문학을 수록한 신문이었고, <그리스도신문>은 최초의 서사적 논설을 게재한 신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¹³⁾

김영민이 다소 개신교 계열 신문에 나타난 단형서사와 서사적 논설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는 데에 그쳤다면, 옥서준¹⁴⁾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그리스도신문>,<독립신문>의 단형서사에 나타난 서구 인식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이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계몽을 서구의 관점에서 보여주려 했으며, ‘개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서구를 알리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구, 문명, 기독교를 거의 동일시하면서 조선이 서구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이 신문들의 단형서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만열, 김영민, 옥서준의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역사학과 국문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정치학의 관점으로 이 신문들을 분석한 이로는 류대영을 들 수 있다. 류대영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에 나타난 문명개화론에 대해, 그리고 근대국가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연구는 두 신문에 대한 그의 근대국가론보다는 문명개화론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의 문명개화론을 물질적 개화, 정치적 개화, 정신의 개화라는 3가지 개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한말 개신교 신문의 문명개화론을 소개하고 있다.¹⁶⁾ 구

석을 중심으로”, 『건대사학』, 제10집, 2003, pp.189-215.

13) 김영민,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문과 한국 근대서사문학:<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27, 2004, pp.246-270.

14) 옥서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에 나타난 서구 인식 양상 연구: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그리스도신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국문학 석사학위논문, 2008.

15) 옥서준, 2008, pp.3-4.

체적으로 그는 물질적 개화는 실용학문의 진작과 산업의 개발, 정치적 개화는 공평무사하고 개명진보된 법률과 민권, 정신의 개화는 근면한 노동과 자립심, 애국심, 여권신장과 교육과 교화라는 요소로 이뤄져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만열을 비롯한 초기 개신교 수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긴 시기를 포괄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의 개신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구습을 개혁하고 개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단편적인 결론에 머무르고 있으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개화담론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오히려 구한말 시기부터 기독교 민족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다소 단순히 전제하고, 그 기독교 민족주의의 시기별 변천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웰스 또한 윤리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분석하려 했지만, 결국 개신교 계열 집단과 인사들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유사한 한계를 드러낸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은 개화담론의 전파에 대한 개신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개화민족주의라는 한국 민족주의의 흐름과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지 못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의 개신교 선교정책과 개신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영민의 연구는 문학적인 연구로서 최초의 단형서사가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옥서준은 좀 더 나아가 그 단형서사 작품에 나타나는 서구 인식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김영민의 경우, 한국 근대서사문학의 도입과 한글의 도입에 있어서 개신교 계열의 신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등에도 개신교 계열의 신문에서 나타난 서사적 논설의 도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¹⁷⁾ 김영민은 개신교 계열의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지적했다면, 옥서준은 <독립신문>을 포함한 개신교 계열 신문에 등장한 인종과 문명개화의 등급에 대한 평가 등에 주목하면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기부터 이미 도입되고 있었음을 비판적

16)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2008.

17) 김영민, 2004, pp.275-276.

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들의 초점이 당시의 민족주의 담론과의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같은 문헌들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개화담론, 그리고 개화민족주의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을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던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 나타난 개화담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가 어떻게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조선병, 개화담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개신교 계열의 직접적인 민족주의 활동에 천착한 웰스나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드러난 개화담론만을 분석한 류대영의 연구와 구분된다. 류대영이 제시하는 정신적 개화에서 포함되는 근면한 노동, 자립심, 애국심, 여권신장 교육과 교화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뤄지지만 이 같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의 ‘조선병’ 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식적인 개화담론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류대영의 연구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는 이 같은 정신적 개화에 대한 담론이 나타났다는 일반적 서술에 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구한말 개신교의 영향력을 서구 문명의 도입 자체와 자주 동일시하는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문제는 상당히 앞서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가 개신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에서 출발된다. 물론 서구 문명의 한 부분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단순한 동일화는 같은 기독교 범주에 포함되는 천주교가 개신교가 도입되기 약 100년 전에 이미 전래되었고, 공식적으로 개신교 신자수가 천주교 신자수를 앞지르는 시기는 1907년이라는 사실¹⁸⁾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의 신문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교(야소교, 개신교)와 천주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18)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p.44.

근대적인 교육이나 계몽, 문명개화를 공통적으로 자신의 종교와 관련하여 주장하였지만, 분명히 구체적으로 강한 종교 윤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천주교 보다는 개신교였으며, 이것은 개신교의 종교 윤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앞선 시기의 천주교가 심한 박해로 인해 현지의 문화에 보다 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개신교 선교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천주교가 먼저 조선에 들어와 심한 박해를 받고, 개신교가 이후에 들어와 간접적인 선교방식-성경번역과 보급, 신문, 교육, 의료-을 채택하여 성공하였지만 만약 개신교가 먼저 박해를 받고난 이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당시 개화담론에서 윤리적인 개혁이 이 만큼 부각되었을지, 더 나아가 이 시기에 순 한글 기독교 신문이 발간되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구의 기독교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신교 선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와 의식적인 차원에서 서구 문명과 근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당시 서구 문명을 생활과 의식적인 차원에까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공감대는 일부 급진 개화파에게만 국한된 일이었다고 할 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윤리가 공식적인 당시 개화담론과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한국의 개화 민족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자료활용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이 본 연구에서 사용될 1차 자료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비교문헌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조선병과 개화담론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나는 특수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어떻게 유사한지, 또한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가 ‘조선병’이라는 <독립신문>의 핵심적인 인식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감리교 계열의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

1897년 2월 2일에 아펜젤러에 의해 창간되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1897년 12월 8일자부터 <대한그리스도인회보>로 개명하는데, 이는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창간된 이후, 두 달 만에 장로교 계열의 <그리스도신문>이 언더우드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비슷한 내용을 게재하였기에 <그리스도신문>의 내용은 2차 문헌을 통해 참고하며, 우선 1차 문헌으로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한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1905년 7월 1일에 통합되어 간행되다가, 1907년 11월 13일부터 <예수교신보>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되었다.

이처럼 <조선그리스도인회보>로 시작된 개신교 계열의 신문은 1900년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식민지 시기 이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초기 개화담론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분석시기를 1897년부터 1900년까지로 한정해보았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이 실질적인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사건이 한국 민족주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계기라는 점을 의식한 시기구분이다. 또한 열강의 이권침탈과 일제의 주권침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개화 민족주의적 담론이 형성 되어있었다는 점과 초기 개화담론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이 유의미 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이러한 민족주의의 흐름이 식민지 이후의 개화 민족주의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인식하에 결정한 시기 설정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에 개신교 신자이자 개화 지식인이었던 서재필에 의해서 창간되었고,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등과 함께 한말 시기의 공식적인 개화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독립신문>의 주필이 서재필, 또 다른 개신교 신자이자 개화 지식인이었던 윤치호, 그리고 아펜젤러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상당히 <독립신문>이 개신교와 가까운 신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 같은 인사들의 관계보다 <독립신문>에서 나타난 생업의 윤리와 조선병 담론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노동윤리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 문헌간의 담론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1896년 갑오개혁 이후 본격적인 개화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었다고 볼 때, 갑오개혁 이후 그리고 일제의 외교권 침탈이 일어난 1905년 사이의 시기에 길지는 않지만 한국 개화담론의 형성에 있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던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개화담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 <독립신문>와 함께 이 시기를 포괄하여 작성된 장로교 연보와 감리교 연보 또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개신교 계열의 선교 정책이 구체적인 윤리적 강령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고자 한다.

5.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서두에서는 먼저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천주교와 역사적으로 구분되었던 모습을 밝히기 위해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전략과 종교적 성격의 차이, 그리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이 발간된 지 약 9-10년 이후에 발간된 천주교 계열의 <경향신문>을 살펴봄으로써 같은 기독교이지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같이 강한 현세적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천주교 계열의 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신교 계열 신문에서 드러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현세적 정향을 강조한다.

천주교 또한 한국에서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종교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현세적인 윤리적 강령과 개신교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우월한 서구 문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신교의 성공은 천주교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의 간접선교정책, 성속이원론(聖俗二元論)에 대해 상대적으로 천주교에 비해 덜 엄격했던 측면, 종교적 자유를 필사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보와의 마찰을 불사했던 천주교 세력과 달리 보다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

계, 그리고 조금씩 외세에 대한 개항이 이뤄지고 있었던 당시 한국의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조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을 통해 먼저 개신교와 구분되는 천주교의 도입과 윤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천주교 세력과 직접선교 정책을 살펴보고, 개신교 윤리의 현세내적 특성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간접선교라는 개신교의 선교정책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발간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나타난 선교정책상의 윤리적 강령을 1차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구한말의 실태와 처방윤리를 분석한다. 게으름과 생활력의 결여, 자립심 결여, 술, 담배, 노름, 조혼, 제사, 무명잡세(無名雜稅) 등이 주로 구한말에 개혁되어야 할 실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실태에 대한 처방윤리로서 기본적으로 생업의 노동윤리와 학문과 교육 권하는 내용이외에도 술과 담배, 축첩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윤리적 개혁의 주장이 결국 각 개인이 생업(직업)을 가지고 노동해야 한다는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로 수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습의 측면에서 혼인과 장례, 제사 등의 개혁에 있어서도 개인의 노동과 자립에 대한 강조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윤리적 개혁에 대한 주장들은 직, 간접적으로 이러한 윤리적 개혁이 궁극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민족을 제대로 된 국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개화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윤리적 개혁에 대한 주장을 염두에 두고, <독립신문>에 나타난 구한말 실태에 대한 인식과 개화담론을 살펴본다. 특히 ‘조선병’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한말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책으로 제시되는 개화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반영된 노동윤리, 축첩금지, 조혼금지,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독립신문의 주장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개화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조선병’과 노동윤리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 조선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놀고먹으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조선병’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정부의 직무, 인민의 직무

등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같이 여겨지는 주장에서도 그 전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과 교육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전제가 반복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노동윤리가 당시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사회적 관습의 개혁과 술, 담배, 위생에 관한 주장, 여성 및 신분차별의 개혁에 대한 주장이 <독립신문>에 함께 나타남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을 종합하면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 상호 인용된 부분과 주필간의 관계를 통해 두 신문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통해 문헌 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문헌 내적인 측면에서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특히 노동윤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다. 물론 당시 <독립신문>에 나타난 조선병과 개화담론에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나타난 ‘정부의 직분’과 ‘생계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서유견문』에서도 생계를 구하는 방도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직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유견문』의 전반적인 강조점이 노동윤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차이를 지적하면서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에 대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영향력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전술한 문헌분석의 의미를 한국 민족주의와 개화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II.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역사적으로 천주교와 구분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한말 개화담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천주교 도입의 역사에 대한 비교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신교보다 약 100여

년 일찍 조선에서 나타난 한국 천주교의 종교윤리와 선교정책을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같은 서구 기독교의 도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구한말 당시 정치, 사회, 윤리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천주교의 영향력이 개신교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본다. 이 같은 작업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 윤리적 차이를 낳는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 그리고 개신교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 선교정책의 차이를 분석하여 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흥미로운 것은 18, 19세기에 천주교가 도입되었을 때,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혼인과 축첩에 대한 문제제기, 한글서적의 번역 등 1세기 이후 개신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야에 대한 천주교의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천주교의 강한 성속이원론적(聖俗二元論) 정교분리 성향, 공동체와 상위 조직원리를 중시했던 천주교의 전통, 오랜 기간의 심한 박해로 인해 종교의 자유와 직접적인 포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둔 선교정책 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천주교의 토착화 자체가 지연되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조선 후기 천주교의 도입과 종교윤리

공식적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시점을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으로 계산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성호(星湖) 좌파에 속한 지식인 중에서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던 중 신앙하는 이들이 나타났고¹⁹⁾ 18세기 말엽부터 천주교는 본격적인 종교운동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는 1549년 일본에 천주교가 예수회의 멤버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de Xavier)에 의해서, 또한 중국에 1583년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된 것에 비하면 뒤쳐져 있는 것이지만²⁰⁾, 한국의 개신교 도입보다는 최소 1세기나 앞선 것이었다.

19) 이만열, 1998, p.34.

또한 조선의 천주교 선교는 파리외방전교회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지만, 사실 천주교 선교세력은 파리외방전교회 뿐 아니라 포르투갈계인 예수회와 도미니코회와 프란체스코회 등 다양한 선교세력이 일본과 중국에서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개신교 보다 최소 1세기 전에 도입된 한국 천주교가 한국 개신교와 역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박해경험의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개신교는 천주교의 기나긴 박해가 마무리되고 종교의 자유가 획득되는 시점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 개신교가 천주교 보다 먼저 들어왔을 때에도 개신교의 역사적 영향력이 컸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 전파된 천주교는 중국, 일본, 조선 모든 지역에서 박해를 경험하였기에 조선에서의 박해가 특수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가 시작된 것은 정약용의 외종(外從)이었던 윤지충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주를 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였고, 윤지충과 같이 천주교에 입교하고 신주를 묻은 권상연은 전주에서 처형되었다. 이를 신해사옥(邪獄)이라 하며, 이후에도 신유(辛酉)사옥, 1839년 기해(己亥)사옥, 1866년의 병인(丙寅)사옥 등 천주교는 큰 박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천주교는 성리학적 질서를 일종의 정치종교적인 원리로 삼고 있던 조선왕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지배층은 서학을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거부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²¹⁾ 이 같은 기나긴 박해의 경험은 한국 천주교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선교정책을 이후에 피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제사라는 조선의 관습을 반대했던 것이 정부의 박해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처럼 천주교 또한 한말 개신교 계열의 신문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관습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789, 1790년에 걸쳐 두 번이나 북경의 중국 천주교회에 신부의 파

20) 강인철, 『한국 천주교의 역사사회학:1930-40년대의 한국 천주교회』,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pp.27-28.

21)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2010, p.3.

송과 제사문제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제사를 반대해야 한다는 답을 중국 천주교회로부터 받아 제사에 대한 거부를 시작했다. 또한 18,19세기 서울 지역의 천주교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혼인과 축첩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를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고 천주교 서적 한글번역도 일반 민인들의 신앙을 위해 수행되고 있었다.²²⁾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었던 당시 조선 사회에 7일을 하나로 엮어서 파악하는 주간(週間)이라는 서구적 개념의 시간의 도입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84년 서울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dies Dominica)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고, 제3조항에서 ‘쥬일을 직히고’라는 규범이 나온 『천주십계』의 한글번역문도 이미 발간된 상태였다.²³⁾ 당시 조선의 천주교인들은 음력에 의한 일상생활과 함께 교회의 전례력과 주일을 지키는 두 가지 방식의 시간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을 파하고 거룩히 지내라’는 주일 개념은 신도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요일에 대한 개념은 당시 만해도 신도들에게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또한 혼인 문제와 관련하여 18,19세기 서울의 천주교 공동체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해 있던 축첩(蓄妾)과 중혼(重婚)에 대해 거부하고 혈연이 아닌 신앙을 매개로한 새로운 통혼권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역혼을 금지하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딸을 시집보낸다든지 정혼하고 쉽게 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었다. 당시 천주교는 과부의 개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했으며, 신도들의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신도들 사이의 혼인을 장려했다.²⁴⁾ 또한 한글 천주교 서적의 경우도 1787년경부터 민인(民人)들을 대상으로 보급되어가고 있었다.²⁵⁾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개신교보다 먼저 전래된 천주교 또한 개신

22) 조광, 2010, pp.280-281.

23) 조광, 2010, pp.250-251.

24) 조광, 2010, pp.253-257.

25) 조광, 2010, p.263.

교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문제, 그리고 혼인과 관련한 축첩과 중혼을 금지하고 신도들끼리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서구적 개념의 결혼윤리를 공동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영향은 한말 개신교 계열신문에서 드러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구분되었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해 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천주교의 윤리적 강령이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천주교를 통해 전파된 종교윤리는 술, 담배에 대한 금지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축일에 술을 많이 즐겼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천주교는 부활절을 비롯한 기념일과 축일을 지켰는데 1800년에 이중배와 원경도가 부활절을 맞아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하여, 먹고 마시고 노래부르며 지낸”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²⁶⁾을 볼 수 있다. 또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홍주로 하향한 최영눌의 경우, 화전을 일구어 양식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었던 담배농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²⁷⁾, 이는 음주와 담배를 금했을 뿐만 아니라, 술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던 한국 개신교의 목회적 권고²⁸⁾와 대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개신교에서 한말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던 것은 사실 개신교의 특수한 노동윤리(protestant work ethic)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술과 담배를 금하고 그 대신 생업과 노동에 충실 하라는 권고가 같이 제시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제사에 대해서는 거부하였지만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천주교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윤리가 개신교와 같이 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대신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의 전통 속에서 성화(聖畵)와 성물(聖物)을 존중하고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²⁹⁾ 천주교의 교

26)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p.458.

2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p.205-216.

28)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p.108.

29) 조광, 2010, p.264.

리를 학습하고 그 의식을 수행하는 전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처럼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전례를 중시하였고, 조선 후기의 안식일이나 혼인과 관련한 조혼, 과부의 개가, 중혼과 억혼(抑婚)에 대해 반대하는 등 개신교보다 먼저 기독교적인 윤리를 도입하였지만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천주교 신앙 공동체내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개신교 윤리의 핵심적인 측면인 노동윤리와 술, 담배를 금하는 금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천주교와 개신교는 역사적인 박해경험의 차이로 인한 선교정책의 차이뿐만 아니라 종교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역사적인 박해경험의 차이와 종교윤리적인 차이는 구한말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2. 구한말 천주교의 선교정책 : 정교분리와 직접선교

18세기 후반부터 자생적인 신앙운동을 형성하고 있었던 한국 천주교는 신부영입운동을 통해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계제도로 접근하였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와의 만남은 1836년에 성사되었고, 이 때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예수회와 같은 포르투갈 계가 아닌 파리외방전교회(M.E.P.) 소속이었다.³⁰⁾ 이는 교황청이 한국 선교를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한 결과였으며, 따라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방침이 천주교의 한국 선교와 동일시될 수 있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수도회(修道會)의 성격보다는, 선교회(宣敎會)의 성격을 취한 단체였고, ‘순교의 영성’을 강조한 단체였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선교의 목표를 한국인 성직자 양성, 신자들을 신심으로 심화시키는 것,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개항기 한국 천주교는 성직자 중심주의, 성사(聖事)중심주의, 직접적 전도 위주의 선교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그들은 박해기의 경험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 획득을 과제로 삼았고 외교적인 노력과 동시에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워 국가권력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다.³¹⁾ 다시 말

30) 강인철, 2006, pp.27-28.

해 개항기 한국 천주교회는 병인박해로 파괴된 교회의 조직을 보수하고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선교활동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그들은 정교분리원칙을 통해 국가권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직접적인 전도방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개항을 통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포교활동을 보호하는 식으로 사용해 국가권력과의 갈등 또한 지속되었다. 중국의 경우 1860년 북경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경우 1873년까지 유효하던 기리시단 금제(禁制)의 고사쓰(高札)가 동년 2월에 철폐되면서 선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한국의 경우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 선교사들은 호조(護照)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천주교의 활동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다. 1888년에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성직자의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었고, 1895년 조선 정부는 병인교난 당시 희생된 일부 신도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하였으며 1899년 교민조약(教民條約)을 통해 한국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종교적 박해의 시기가 종결되었다.³²⁾

천주교 선교 세력은 선교사들의 당시 치외법권을 최대한 이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지인 신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프랑스와 맺은 불평등 협정의 이른바 ‘관용조문’(toleration clauses)이 개신교 보다는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활용되었고, 조불수호조약의 경우 여행과 전교(傳教)할 자유를 보장할 것과 그들에게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쳤음에도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을 이용해 송사에 개입하고, 개항지를 벗어난 곳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안(教案)³³⁾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31) 신광철, 1998, pp.61-63.

32) 신광철, 1998, pp.66-69.

33) 교안(教案)이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그리스도교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분쟁과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교섭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안이 외교적인 문제

천주교 선교사들은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에 비해 자신들의 치외법권과 정치, 외교적 권한을 특권화하며 조선 현지인들의 갈등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교안(敎案)의 형태로 일어난 반(反)기독교운동의 주된 공격 대상은 천주교였고 이것의 발전과정에서 개신교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것³⁴⁾이었다.

심지어 프랑스 당국의 보호와 지지를 통한 정치적 특권을 사용하고 자 했던 천주교 세력의 선교는 조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가혹한 박해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866년 베르뇌(Berneux) 주교와 흥봉주를 비롯한 신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시작된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물러난 1873년까지 지속되었다. 공식적으로 1784년 이후 성장해왔던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7년 동안의 대원군 정권의 박해로 인해 파괴되어 갔다. 1866년 25000명에 가까웠던 신자들의 대부분이 순교하거나 살아남은 신자들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신앙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³⁵⁾ 1876년에서 1879년까지 전국의 신자 수를 조사하였던 블랑, 드게트, 두세, 로베르 신부는 대략 8000명의 신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7년간의 박해로 인해 대략 70%에 가까운 신자가 순교하거나 숨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천주교의 선교정책은 기존에 존재했던 교회를 재건하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졌다.³⁶⁾

구체적으로 조선이 수교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프랑스가 1886년 5월 1일 북경 주재 공사 프랑수와 코고르당(Francios George Cogordan)을 파견하여 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김윤식과 조약에 대해 논

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한국의 경우 교회와 향반토호층, 민인층, 지방관, 기타 사회세력과의 대립 등으로 인해 나타났다. 신광철, 1998, pp.98-99.

34) 프랑스는 공화제이든 왕정이든 '종교보호'라는 국가적 전통을 변함없이 지켰으며, 중국, 일본, 조선 모두에서 서구 열강 중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선교사들 또한 조선에서의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프랑스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1860년대까지 세 차례의 함대 원정을 시도하여 무력을 통한 함포외교(艦砲外交)를 전개했지만, 실패하면서 맺게 된 것이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었다. 강인철, 2006, pp.37-63.

35) 장동하,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p.255.

36) 장동하, 2006, pp.283-289.

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하기를 요구하였던 것³⁷⁾을 통해 이러한 천주교의 선교정책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볼수호조약 이후에 발생한 많은 교안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종현성당 건립을 들 수 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이 성당 건립지를 모색하면서,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궁궐과 종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부지를 1887년 매입하였고 이곳에 종현성당을 건립하고자 하였다.³⁸⁾ 그러나 이곳에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천주교의 의도를 알게 된 고종이 이 땅을 다시 매입하려고 하였고,³⁹⁾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정은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다. 블랑 주교가 러시아 공사를 통해 조정에 제소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초대 프랑스 공사 플랑시의 중재로 2년 후인 1890년에 가서야 그 땅의 문권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⁴⁰⁾

기본적으로 구한말 한국 천주교의 선교정책이 프랑스로부터 성직자를 더욱 영입하여, 무너진 교회조직을 복원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신자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의료사업으로 시작했던 개신교의 선교정책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요컨대, 구한말이라는 시기는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는 기나긴 박해로 인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는 시기였으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외법권과 프랑스 당국의 정치, 외교적인 실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던 것을 조볼수호조약 체결 과정의 코고르당 공사의 요구와 성당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로 인한 조정과의 갈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주교 보호와 본당설립을 통한 교세확장이라는 선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시 한국 천주교는 프랑스 당국의 정치적 실력과 분리되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프랑스 당국 또한 전통적으로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여 왔다. 천주교의 선교 정책에서의 정교분리는 박해로

37)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pp.202-205.

38) 오늘날 명동성당이 위치한 부지가 이곳이다.

39) 류대영, 2004, p.245.

40) 유기창, 「한국 초기교회사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석사논문, 2003, pp.20-21.

부터의 보호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정교분리였고, 조선 정부와의 정교 분리에 있어서는 박해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의미의 정교 분리였다고 볼 수 있다. 박해로부터의 보호 내지는 박해로부터의 분리라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본국과 조선정부에 대한 정교분리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다.

3.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특징

여러 신앙이 뒤섞여 있는 지방의 직업 통계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독일 가톨릭파 회의석상이나 신문.문헌에서도 자주 논의되고 있는 이 현상은, 근대적 기업분야의 자본 소유 및 기업가와 숙련된 고급 노동자들-특히 기술적.상업적 훈련을 통해 교육받은 종업원들-이 눈에 띄게 프로테스탄트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가톨릭교도 대학 지원 자격자들 내부에서도 근대적인, 기술 학습이나 상공업 관련 취직 준비 처럼 대체로 시민적인 영리(營利)생활을 지향하는, 예컨대 실업 고등학교, 실업학교, 고등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사람의 비율은 프로테스탄트에 비해 훨씬 적다.⁴¹⁾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서두에서 당시 독일의 가톨릭 신도와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업적 성격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비록 현세(現世)가 죄의 온상이고,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매우 평가절하 된다 하더라도, '세속적 직업'을 통해 신이 원하는 활동을 펼칠 무대로서의 현세는 더욱 더 긍정되었다는 점이다.⁴²⁾

이를 베버는 '현세내적금욕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신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위에 두고 세속적인 권력과 성공을 배척한다는 면에서 현세 거부적이었지만, 사실은 결코 현세 도피적이지는 않았으며, 어찌 보면 현세를 신의 뜻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현세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버는 보다

41) 막스 베버, 김현욱 옮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동서문화사, 2010, p.15.

42) 막스 베버, 전성우 옮김,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2008, pp.176-177.

중요하게 이 같은 현세지향적인 금욕주의가 의도치 않게 다른 지역이 아닌 서구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은 ‘현세내적금욕주의’는 서구의 개신교가 선교사들을 통해 구한말의 조선에 도입될 때에 개신교가 선택한 간접선교 방식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금욕적이지만, 확연히 현세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의 윤리는 그 종교윤리적 특성에 더해 역사적으로 가톨릭의 경험을 거울삼아 채택한 간접선교방식-교육, 의료, 사회사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결국 당시 조선이라는 망국을 서구적 의미의 민족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윤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선교사들의 주장은 개신교를 믿게 되었던 개화파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바였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현실 세계에서 신의 나라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해가기 위해, 그리고 현실에서 더욱 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금욕주의적인 목회적 규율들을 만들어 내었고, 구한말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윤리적 강령은 천주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혼(重婚)과 축첩(蓄妾)에 반대하고,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모습 등은 훨씬 앞선 시점인 18, 19세기의 천주교에서도 나타난 모습이지만, 이후 20세기에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교육하였던 것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 했으며, 이러한 규율이 개신교 특유의 노동 윤리로, 또한 결국 구체적인 개화담론과 함께 결합되지는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의 영세규정	개신교 세례문답 (Questions asked candidates for bapt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세례는 3일 이내에 해야 하고, 8일을 넘기면 처벌된다. . 어린이에게 고해성사의 결과를 묻는 어른은 보속(補贖)으로 천주경과 성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How long is it since you became a christian? (The time ranges from 6 months to 3 years) 2.Do you attend church regularly? 3.Do you use intoxicants?

<p>경을 한번 외워야 한다. . 예배자가 영세하려면 적어도 40일간의 시련기간과 십이단, 삼본요리를(三本要理)를 알아야 하고, 노인이면 진교문답(進敎問答)을 배워야 한다. . 배교자는 5번 내지 10번의 대재와 2개월 동안 묵주 신공을 바친 사람이 아니고는 고해서에 받아들일 수 없다. . 혼배를 하려면 최소한 남자는 만 14세, 여자는 만 12세를 넘어야 한다.⁴³⁾</p>	<p>4.Have you any Concubines? 5.Do you sacrifice to ancestors or spirits? 6.Do you work on the sabbath?⁴⁴⁾ (Questions 2 to 6 are repeated from admission on trial) 7.Will you endure persecution or abuse? 8.Do you have family prayers? 9.Are the members of your family all Christians? 10.What are you studying? 11.Have you read the book on baptism?..... 15.Who is Jesus Christ? 16.What do you know of redemption? 20.Do you take delight in the growth of the church?</p>
---	--

<표1> 천주교의 영세규정과 개신교의 세례문답 비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 윤리적 영향력의 차이는 19세기의 천주교의 영세규정과 19세기 말의 개신교의 세례문답을 함께 놓고 볼 때에 더욱 명확해진다. 천주교의 영세규정은 주로 유아세례와 삼본요리(三本要理), 진문교답(進敎問答) 등 종교적인 차원의 규정을 가지고 있던 반면, 개신교의 세례문답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지, 술을 마시는지, 첩을 두고 있는지, 조상숭배를 하는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지 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여 물음으로써 이후에 나오는 종교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당시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윤리적 실천덕목을 상당히 의식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신교의 윤리적 강령이 개신교가 천주교의 역사적 경험을

43) 장동하, 2005, p.268.

44)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Official Minutes of the Twentieth Annual Meeting 1904", 『조선감리회연회록』, 1987

반면교사로 삼아 선택한 간접선교방식과 함께 강조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조선을 서구적 의미의 민족국가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는 개화담론과 결합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독립신문>에서 나타나는 조선병과 개화담론과 연결되었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서재필과 같은 개신교 계열의 개화파 지식인들 또한 사실상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분석되고 있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구한말 조선의 실태와 윤리적 강령,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지적되는 구한말 '조선병'과 그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되는 개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담론들은 결국 언급한 바와 같은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Ⅲ.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개화민족주의

1. 구한말 개신교의 선교정책 : 정교분리와 간접선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교세확장을 지속했던 천주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선교정책에 대한 검토 후, 천주교와의 차별화와 간접선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개신교 선교세력은 천주교 선교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조선 정부의 포교 금압(禁壓) 정책으로 인해 직접전도가 어렵게 되자, 먼저 정부와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선교보다는 성서 번역과 보급을 통해 선교를 실현하고자 하였고,⁴⁵⁾ 후에는 교육, 의료선교 등의 간접선교전략을 수행하였다.⁴⁶⁾

45) 이만열, 1980, pp.12-21.

46) 신광철은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가 천주교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간접선교방식을 택하였다고 해서 개신교의 선교가 간접선교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장로교의 경우, 직접선교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전반적인 개

프랑스 당국이 기나긴 박해를 경험한 한국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에 비해, 개신교 선교세력은 본국으로부터의 포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선정부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교육, 의료세력으로 먼저 조선에 들어오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시에 조선정부가 불립교당(不立敎堂) 정책을 펴고 있었으며, 서학을 믿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1882년에 신헌, 김홍집과 슈펠트(Robert W. Shufeldt) 사이에서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에는 불립교당의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인 초안의 제10관에는 불립교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우선 미국인이 여권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 내의 외국인 조차지에만 거주할 수 있게 제한함으로써 개신교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개신교 포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⁴⁷⁾ 천주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펼쳤던 프랑스 공사들과는 달리 미국 초대 공사였던 루시어스 푸트(Lucius H. Foote)는 우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종교의 자유문제를 성급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⁴⁸⁾ 이러한 미국 공사의 태도는 천주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프랑스 공사의 태도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1884년 일본 주재 미 감리회 선교관리자 맥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박사가 6월 24일 한국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고종황제로부터 7월 3일 교회학교와 의료사업의 유히를 받았으며, 1884년 9월 20일에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회의 알렌(Horace Newton Allen) 박사 또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선교사 등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주한 영미공사관의 공의(公醫)로서 활동하였다.⁴⁹⁾ 특히 알렌은 푸트나 조선 정부가 우려했던 것보다 신중하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임하였고 일하는 동안 포교행위를 일체하지 않으면서 의사로서의 일에 전념하였다. 갑신정변에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성공적으로

신교의 직접선교는 천주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47) 류대영, 2004, pp.159-173.

48) 류대영, 2004, p.175.

49)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Official Minutes of the Twentieth Annual Meeting 1904", 『조선감리회연회록』, 1987.

치료해주면서, 알렌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증했던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선교사 가운데 의사로 활동했던 이들은 알렌 뿐 아니라, 헤론(John W. Heron),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메타 하워드(Meta Howard)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의료봉사를 하면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제중원(濟衆院)과 시병원(施病院)이 1885년에, 그리고 보구여관(保救女官)이 1887년에 세워지면서 한말 최초의 서양식 병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었다. 여기서 제중원은 조선 정부의 건물과 재정의 지원을 통해 세워진 왕립병원이었다.⁵⁰⁾

아펜젤러 부부, 스크랜튼의 어머니(Mary F. Scranton),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등 의사가 아니었던 다른 선교사들은 고아와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먼저 학교를 설립하는 일, 즉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신교 교육 사업으로 1886년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그리고 경신학교가 탄생하였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각 교단의 선교본부로부터 받게 된 지침은 무엇보다 직접적인 포교보다는 당분간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감리교 선교본부의 책임총무(Corresponding Secretary)였던 존 리드(John M. Reid)와 장로교 선교본부의 책임총무였던 프랭크(Frank Ellinwood)는 각각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신은 그 나라가 기독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파견된다.....그러나 우리는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은 조선인들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론 그것[교육사업]이 당신의 첫 임무가 될 것이다.....우리는 그 나라의 법과 사람들의 독특한 편견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⁵¹⁾ [강조는 인용자]

“통상적인(regular) 선교사업 대신 2,3년 동안 영어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그 외의 다른 일은 극히 조심하라.”⁵²⁾

50) 류대영, 2004, pp.191-192.

51) 류대영, 2004, p.192. 에서 재인용.

52) 류대영, 2004, p.192.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선교 본부의 방침에 충실했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그 외의 직접적인 전도나 포교활동을 시도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도 이 시점보다 10년 뒤인 1890년대에 이르러서였다.⁵³⁾ 또한 이 편지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간접선교정책은 미국의 개신교 교단 선교본부에서 이미 결정되어 의도적으로 수행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해 본국 정부의 포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고, 천주교가 박해 당했던 선례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개신교의 전파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가톨릭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모습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하지 않아 아직 신자수가 많이 많다는 것에 안심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곤경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내한입니다.....그들은 말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목사라는 신분도 감추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의 수많은 미국 목사들은 불행히도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전도는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서는 영어와 서양학문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우리를 약간 안심시켜주는 것은 이 목사들이 선전만 일삼고 일하는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의 수도 극소수라는 점입니다.”⁵⁴⁾ [강조는 인용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본국으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888년 8월 23일 장로교 선교사 헤론과 언더우드는 당시 미국 공사였던 딘스모어(Hugh A. Dinsmore)에게 편지를 통해 학당설립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부탁하였다. 그들은 그 편지에서 설립되는 학당에서는 영어와 다른 서양 언어, 그리고 모든 분야의 학문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공사의 공문에 대체로 즉시 답하던 관례와 다르게, 이 요청에 대해 조선정부는 별다

53) 이만열, 『한국 기독교 의료사』, 아카넷, 2003, pp.162-166.

54) “1885년도 보고서”, “1887년도 보고서”, 『서울교구년보1:1878~1903』, 명동천주교회, 1984, pp.44-63.

른 회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1년 지난 1899년 9월에 서리독관 민종목을 통해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다. 1888년 9월 조선을 방문한 감리교의 파울러 감독(Charles H. Fowler) 또한 딘스모어 공사에게 대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고 고종의 유히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은 ‘영구적인 형태의 어떤 진술’(some statement in permanent form)을 얻어서 이후에 필요할 수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였는데,⁵⁵⁾ 딘스모어는 개신교가 설립된 학교를 예배당으로 쓰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던 조선정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고종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는 크게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나 기독교 포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인해 천주교 세력이 프랑스 공사를 통해 시도하였던 것처럼 미국 공사를 통해 공식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하였던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보다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두 기독교 세력의 역사적 경험과 선교 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선교사의 치외법권과 프랑스 본국의 정치적 실력에 의지해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천주교 선교사들처럼 개신교 세력들 또한 미국 공사를 통해 학교의 설립을 보장받고자 하였지만, 그 내용과 강도에 있어서 두 기독교 세력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공사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교 설립에 대한 보장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조선 정부가 선교 여행을 떠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소환하기를 요구했을 때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부를 통해 그들을 소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분명히 전도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포교 금지라는 조선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국의 정치적 지원의 내용이나 강도가 천

55) 류대영, 2004, pp.254-256.

주교 세력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유연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 세력 또한 이미 다른 방식의 선교전략을 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독교 선교세력의 정교분리 정책을 본국, 그리고 조선 정부와의 정교분리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천주교는 본국의 적극적 협조 속에 소극적인 정교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정부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적극적인 정교분리 정책을 펴고 있었다. 반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본국에 학교 설립 허가와 관련한 요청을 본국을 통해 시도했을 뿐, 오히려 조선 정부의 선교사 여행금지를 전달하는 등 개신교에 대한 미국 본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선교방식과 교육, 의료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조선정부와는 천주교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반영된 선교 정책적 결정

전술한 개신교의 간접선교정책-의료, 교육, 언론, 출판-은 결과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이라는 신문을 개신교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간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들에 담기는 내용도 사실상 상당 부분 결정지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니다. <독립신문>에서도 등장하는 '조선병'으로 요약되는 구한말 조선의 실태와 그에 대한 윤리적 개화의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에 담긴 내용들과 상당히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윤리적인 강령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연례선교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례선교연보 및 회의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물론 개신교 선교회가 무엇보다 선교(宣敎)를 최고의 우선순위와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선교정책 상 조선의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나아가 민족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통해 제대

로 세워가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감리교 연보에서 발견되는 조선에서의 금주(禁酒)에 관련한 보고 및 권고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Your Committee on Temperance would report that we find the curse of strong drink raging in Korea. As everywhere so among these Koreans it brings visible and startling disaster to the individual, the family, society, and the nation. The custom of dram drinking is as strongly entrenched in society in Korea as it was in America 75 years ago. No social gathering or chance meeting of friends is considered complete without it.....No sentiment whatever antagonistic to this curse exists among the natives. Until this Annual Meeting, no Meeting to arouse such sentiment has ever been held in this country.⁵⁶⁾ [강조는 인용자]

감리교 선교사들로 구성된 절제, 혹은 금주(temperance) 위원회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위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음주가 조선의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민족에게 큰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언급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주 혹은 금주라는 윤리적 강령을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규율을 넘어 조선의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민족을 관련시켜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독특한 어법이다. 술에 대한 무절제함과 술이 없이는 사회적인 모임이나 친구들 간의 만남조차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조선의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민족을 망쳐놓고 있으며 조선을 위해서 이를 반드시 타파해야한다고 보는 당시 개신교 계열의 조선 사회에 대한 시선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지속적으로 특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계주론(戒酒論)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개신교 선교의 정책이 있으며, 술 문제를 포함한 각종 윤리적 강령을 조선의 개인, 가정, 사회, 민족의 문제로 연관시키는 논리 또한 여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스크랜튼은 이어 작성한 감독의 보고(the report of

56)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Report on Temperance", "Minutes of the Ni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 Church held at Soul, Aug. 31st to Sept. 8th. 1893", 『조선감리회연회록』, 1987.

Superintendent)에서도 감리교 계열의 선교 상황과 현황을 개괄하면서 당시의 조선이 어둡 가운데 있는 이유를, 조선이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the natural man)⁵⁷⁾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힘쓰는 교육을 통한 선교가 보다 나은 시민적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Our work in the Korea Mission is easily divided into the institutional and evangelistic, tho the workers in the institutions are all more or less occupied with evangelistic work also.....You know how Korea had abode and still sits in the regions of the shadow of death, and this, not because it has not had opportunities sufficient to go out into the light, but because men-the natural man-lov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Where the people fail to appreciate their own needs or to raise up leaders among themselves for such ends, there our school has stepped in, and beginning at the bottom, is slowl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stronger civic development.⁵⁸⁾ [강조는 인용자]

스크랜튼은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선교 현황은 크게 제도적인 차원의 것(the institutional)과 복음적인 차원의 것(the evangelistic)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두 가지에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어둠 속에 있는 조선에 빛이라는 기독교적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은 사실상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개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선의 어두움의 원인을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에 있기를 바라고 시민적 발전을 위한 지도자를 키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수행하는 교육

57) 여기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을 의미하지만, 원문(the natural man)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죄(罪)를 가진 자연인을 전제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58)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Report of Superintendent”: “Official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welfth session, held in Seoul, Korea, Aug. 19-24, 1896”, 『조선감리회연회록』, 1987.

활동은 바로 이 같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며, 조선이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인들이 시민적 발전을 이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direct work of the evangelization of Korea is the department most sadly deficient. Our institutional work which is so necessary is, however, out of all proportion to our evangelistic force.....so will urge again, that the adequate increase of our evangelistic force would be the means of greatest profit to our institutional work.....These Christian men, educated, would in time not only become a force in the land but a Christian force for the advancement and strength of the church.⁵⁹⁾ [강조는 인용자]

스크랜튼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선교 방식을 제도적인 차원의 것(the institutional)로, 직접적인 포교를 통한 전도활동을 복음적인 차원의 것(the evangelistic)으로 분류하였고 개신교 계열은 천주교 보다 제도적인 차원의 선교방식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이 두 차원의 선교를 그들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차원의 선교방식이 전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결국은 개인, 사회, 가정과 민족의 윤리적 개혁과 시민적 발전이 이뤄지는 것 또한 개신교 계열의 선교에서 궁극적인 복음전도를 통한 개종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두 가지 차원-제도적인 차원, 복음적인 차원-의 선교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복음적인 차원에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차원의 윤리적 개혁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스크랜튼이 오히려 복음화를 위한 직접적인 선교가 다른 제도적 차원의 전반적인 선교 정책 등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복음적인 차원의 선교가 늘어날 때, 제도적인 차원의 선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59)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Report of Superintendent"; "Official Minutes of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welfth session, held in Seoul, Korea, Aug. 19-24. 1896", 『조선감리회연회록』, 1987.

그는 보고 있다. 교육받은 개신교인을 양성하는 것은 나라의 인재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발전을 위한 일임을 언급하는 부분 역시 윤리적 개혁을 통한 조선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추구해야하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비록 개신교 계열의 선교 정책은 선교적인 동기에서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제도적인 차원의 간접 선교정책은 조선의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민족을 윤리적으로 개혁하고 교육시켜 어둠 속에 있는 조선을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선교사들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두 가지 목적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선교 정책적 논리는 그들이 발간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의 담기는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선그리스도인회보>⁶⁰⁾의 발간

1897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2월 2일 순한글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창간하였다. 또한 같은 해 4월 1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순한글 신문인 <그리스도신문>을 발행하였다.⁶¹⁾ 1883년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가 순한문체로 발행된 이후, 1896년 4월

60)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1897년 2월 2일 발행이 시작된 이후, 동년 12월 1일까지 같은 이름을 유지했고, 국호가 대한으로 바뀐 이후에는 <대한그리스도인회보>라는 제호를 바꾸어 1905년 6월 24일까지 발행되었다. 1905년 7월 1일부터 1907년 12월 3일까지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그리스도신문>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고, 1915년 12월 8일부터 1937년까지는 감리교, 장로교 합동으로 <기독교신보>라는 이름으로 속간되었다. 이름은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하였고, 신문들이 담아내는 시대적인 내용과 분위기 또한 달라졌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주장되었던 윤리적 담론들과 민족주의적인 주장은 을사늑약 이후 애국계몽운동과 실력양성론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감리교사학회, 『조선그리스도인회보』, 한국감리교사학회, 1986, 서문 참조.

61)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2, 2005, p.8.

7일 <독립신문>이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신문은 아니었지만 개신교 계열에서 다른 종교계열보다 이른 시기에 순한글 언론매체를 출간한 것은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민중이 읽을 수 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한글로 출간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 근거한다.

개신교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박해받았던 역사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직접선교보다는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을 통한 간접선교방법을 택하였고, 이 같은 특성은 보다 많은 민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노력이었다.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성경을 중시하는 개신교의 특성이 함께 결합되어 개신교에서는 한글성경번역이 이미 1870년 말에 로스와 의주청년 이승찬에 의해 시작되었고⁶²⁾, 이러한 점을 기억할 때 개신교 계열신문이 타 신문보다 일찍 한글을 사용한 사실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발행된 1897년 즈음에는 이미 성경의 한글번역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였으며, 민중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원했던 개신교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초의 개신교 계열의 근대 신문이 한글로 발간된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용하는 이 같은 개신교 계열의 한글 도입에 대해 <독립신문> 이전의 종교계에서 국문전용을 실행하였으나 선교가 목적이었을 뿐, 민주주의 사상은 매우 미약했으며, 민족주의 사상은 전혀 없었다⁶³⁾고 지적하고 있으나, <독립신문> 발간 이후 1년 만에 발행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은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증(falsification)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독립신문>과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민족주의, 내지는 독립을 주장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주장된 내용은 결국 구한말 조선의 부정적인 현실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윤리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일정 부분 ‘조선’이라는 민족(nation) 혹은 국가(state)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그렇

62) 이만열, 1998, pp.61-66.

63) 신용하, 『독립협회연구: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 (상)』, 일조각, 2006, pp.37-38.

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특수성을 살펴보면서 천주교에 서도 중혼이나 축첩을 금지하고 혼인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안식일은 지키는 등의 비슷한 윤리적 강령이 있었지만 심한 박해로 인해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에 집중했던 천주교의 선교정책과 개신교의 윤리와는 다소 다른 윤리적 지향(志向, orientation)으로 인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신문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윤리적 강령과 개화담론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창간된 지 약 9년만인 1906년에 창간된 천주교 계열의 <경향신문, 京鄕新聞>에서 언급된다는 점이다.

천주교 계열의 신문인 <경향신문>은 1906년 10월 19일 창간되어 1910년 12월 30일까지 전체 12면의 한글 주간지로 창간된 한국 천주교회의 근대 매체였다.⁶⁴⁾ 일본의 검열조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경향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프랑스 신부 드망주(Demange, 한국명 안세화)가 맡았고, 당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개화의 본질을 가르치고 신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된 신문이었다.⁶⁵⁾

신문명	독립신문 (한글,영문)	조선그리스도 인회보 (한글)	그리스도 신문(한글)	매일신문 (한글)	데국신문 (한글)	황성신문 (국한문)	경향신문 (한글)
창간년도	1896년	1897년	1897년	1898년	1898년	1898년	1906년
폐간년도	1900년	1937년 (기독교신보)	1937년 (기독교신보)	1899년	1910년	1910년 (한성신문)	1910년
편저자 (주필)	서재필, 윤치호, .엠벌리 ⁶⁶⁾	아펜젤러 및 감리교선교사, 조선감리교인 ⁶⁷⁾	언더우드	양홍목,기재원 이승만,최정식	유영석,이승만, 심상익,기재원	유근, 박은식, 장지연	김원영, 드망즈 (Demange, 安世華)
출판계열	민간 (서재필)	개신교 (감리교)	개신교 (장로교)	민간 (협성회)	민간 (이종일)	민간 (남궁억)	천주교

64) 조지형, “1906년~1910년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과 그 지향”, 『국어문학』 제46권, 2009, p.273.

65) 참된 개화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며, 개화를 통해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자신의 의지를 다스려서 생업에 충실하고 잘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논설이 <경향신문> 1907년 12월 20일자에서 발견된다. 또한 주일에 신앙생활을 하며 욕구를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조지형, 2009, p.274. p.283.

	정부보조)						
폐간이유	정부의 압력	미상	미상	재정 및 운영난	재정 및 운영난	재정 및 운영난	1910년 신문지법 <경향잡지> 로 변경

<표2> 1896년 무렵 발간된 구한말 신문 비교(68)69)

그러나 참된 개화에 관해 자신의 의지를 다스려서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사실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하고 있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서 핵심적인 윤리적 강령으로 이미 나타났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기에 대한 고려를 감안할 때, 대략 9-10여년 앞선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주장이 개화, 혹은 애국계몽의 담론으로 이미 상당부분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업에 충실해야함을 강조하는 노동윤리는 개신교의 강한 윤리적 지향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에, 천주교 계열에서 발간된 <경향신문>의 뒤 늦은 개화에 대한 주장은 다소 뒤 늦은 감이 있으며,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과의 상호연관성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경향신문>은 이미 일전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서 제기되었던 윤리적 개화담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개화담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간략히 언급하고 있

66)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한국 근대언론의 재조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23.

67) 류대영, 2005, p.8.

68) 류대영, 2005, p.25. 관보로 1883년에 발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와 일본 측에서 발간한 한성신보(漢城新報)도 있으나, 이 표에서는 주로 개화 및 계몽을 목적으로 한 국내 계열 신문들을 비교해보았다. 1900년도 이후 발간된 신문 또한 포함하지 않았지만, 개신교 계열과 천주교 계열 개화 신문의 출간을 비교하기 위해 천주교 계열인 경향신문만 따로 삽입하였다.

69) 독립신문이 개신교인이었던 서재필, 윤치호가 주필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개신교 계열 배재학당 협성회회보에서 태동한 매일신문을 포함하면, 표2 에서 개신교의 직,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신문이 4개나 된다는 사실과 신문에서의 한글 사용이 주로 이 신문들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도 당시 개화 계열신문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동식 외, 『기독교와 한국 역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는 <경향신문>과는 다르게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은 <독립신문>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한말 조선에 대한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독립신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의 개화와 사회적 제도와 관습의 개혁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장하고 있다.

4.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구한말의 실태

1) 게으름과 생활력의 결여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한말 조선의 개인적인 의식과 사회적 관습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개인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게으름과 생활력이 결여된 상태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오늘할 일을 내일 미루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함을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게으르게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에 더해 자신의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특히나 자신을 지키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은 무론 무삼 일이던지 오날홀일을 래일훈다 모래흐지 호고 미루지 말지여다 이 거슨 게으른 사름의 버르장이니 만스 불성이오 그는 내가 홀만홀일노 님을 고훈게 식이지 말지여다 나홀일은 내가 호여야 이거시 조쥬호는 권리를 보전호는거시오⁷⁰⁾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한 개인이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만 한 개인으로서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물론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맥락에서 조선인들이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을 남에게

70) “열 가지 조심할 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2월 1일.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게 될 때, 나라의 차원에서조차 자주하는 권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게으름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전가하는 문제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조선인과 조선을 만드는 요인이며, 사실 상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잘잘못 이상으로 조선의 ‘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또한 간접적으로 당시 선교사들이나 개화 지식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자신의 일을 미루거나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우리가 불가불 오늘부터 진정 겸손함으로 주의 교훈을 명심하여 게으르지 말고 말하기를 도회 말고 일하기를 도화하며 교만함과 가증함으로 몸을 앗기지 말고 조그와 부모 처자와 집 모임 그지라도 이전보다 특별히 정결한 모양 되어야 외인보다 문명한 빛이 되겠소 누구든지 가증한 모습으로 게으르지 말고 무식히 잠만 자지 말고 주의 명령을 명심하여 아모쪼록 모든거슬 정결기로 작명하면 능히 흡수잇소⁷¹⁾ [강조는 인용자]

달성회당의 한 교우가 보낸 글을 게재(揭載)한 위의 인용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는 자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하기만 좋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일하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게으르고 무식히 잠만 자는 모습을 가증한 것, 그리고 몸을 아끼며 일하지 않는 것을 교만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바른 신앙생활에 대비되는 조선인의 실태를 이러한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구제라 하고 돈이나 쓸이나 의복을 주는거슨 놈을 얼마큼 게을르게 문드라 주니 내의 죄요 훈사름 두사름 초초 게을너 비러 먹는 사름이 만히 생기면 나라에 크게 해가되니 나도 구제를 잘못하여 전국에 걸인이 만히 생기게한 죄인중 훈나이러 엇지 조심치 아니리오⁷²⁾ [강조는 인용자]

71) “논설”,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3월 30일.

72) “구제하는 데 조심할 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3월 1일.

당시 조선인들의 게으름 일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게으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잘못된 구제(救濟)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는 사실 종교적인 동기에서 권장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눈에 비친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지 않는 이들에게 구제는 게으름을 지속시키며 결국 나라에 해(害)가 된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여기서도 게으름이라는 개인차원의 윤리의 부재가 민족의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의 독특한 논리가 발견된다.

그 말씀대로 인민을 교육할르 것갓흐면 대단히 유췌흔 듯흐나 현금에 대한 사름들이 그 서책을 공부흐고 그 행실인 즉 성현의 훈계와 어긋는 일이 만히 잇시니 그 까툼이 어나곳에 잇노요 그 리치를 늘 궁구흐여 보건대 동양 성현의 말씀이 다만 후세 사름의게 규칙이 되거니와 능히 사름의 행실을 권면 흐는 힘이 업시며⁷³⁾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자신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거나 생업을 가지지 않고 놀고먹으며 살아가는 게으른 삶을 비판하는 한편, 당시 조선의 학문이나 교육이 사람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생업을 가지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나 장애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해 버리는 나약함 또한 큰 의미의 생활력의 결여라 할 수 있는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은 이러한 의미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문져 게일 목소가 학도들을 권면흐야 말씀흐되 내가 대한에 나아와서 여러해 동안을 슌혀본즉 대한 사름의 재췌가 서양 사름과 비교흐면 조곰도 부족흔 것이 업시되 다만 무음이 영약지 못흐야 만약 어려운 일을 당흐면 뜻이 풀니여 감히 경영치 못흐니 크게 개탄홀 곳이라 우리 서양 사름은 그렇지 아니 흐야 어려운 일이면 재미가 더 나고 힘이 너

73) “재주와 지혜를 더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9월 13일.

있는 것은 그 리치가 다 성경에서 나온이니⁷⁴⁾ [강조는 인용자]

성현의 가르침을 주로 가르치는 주자학의 교육이 사람의 행실, 혹은 행함을 권면하는 힘은 기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나는 미국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어려운 일을 극복해가는 생활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음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인용문은 게일 목사가 조선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로 진술한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인들은 서양인들같이 마음이 영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주저앉아 버린다고 제시한 부분이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영악하고 쉽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의욕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게일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생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않는 영악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이 바라본 당시 구한말 조선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생업을 가지기 보다는 게으르고, 생활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는 생활력에 더해,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지 않았고 당시 주자학에서 말하는 성현의 가르침은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종류의 생활력을 전혀 기르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일을 찾는 것이 스스로 자주하는 것이고, 스스로 벌어들이지 않는 게으른 이가 많으면 나라에 큰 해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개인윤리적인 강령은 조선 민족의 문제와 결부된다. 서양 사람과 같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더욱 영악한, 혹은 독한 마음을 품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개인 윤리적 의식 또한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조선 민족이라는 집단의 미래와도 연관된 문제로 해석된다.

2) 민족적 자립심 결여

우리 나라 풍속이 이상하야 자고 이래로 내 나라 스기와 내 님군 영광은 크르치지

74) “배재학당 하계방학”,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7월 4일.

안코 다만 중원 소기와 중원 영광을 기록치는 고로 내 나라 스랑 허는 무음이 업서 진과 한과 당과 송과 명과 청의 력대 도흔 일은 알아도 우리나라의 영고아되논 일과 날을 모로 니 한심하도다⁷⁵⁾ [강조는 인용자]

조선 건국 506주년 되는 기원 절일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서 내외 각국 손님들을 청하여 경절(慶節)을 축하하였던 내용을 담은 위의 인용문은 조선의 기원절일을 축하함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한편 당시까지 이 같은 기념의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선에서는 내 나라와 임금에 대한 자부심은 가르치지 않고 중원(중국)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만을 가르쳐왔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우리나라 풍속이 이상하여, 다른 나라인 한, 당, 송, 명, 청의 좋은 일만 말하고 우리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모르는 것을 비판하는데 이는 민족적인 자립심,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는 당시 조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다.

이것은 당시 개인의 의식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의 의식적 측면에도 해당될 수 있는 차원의 비판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순전히 민족적 자립심이 결여된 상태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 이 기원 절일에 대한 기사가 <조선그리스도인회보>라는 개신교 계열의 신문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독립협회 회원들의 민족주의적 의견과 논의를 그대로 가져와 신고 있는 상황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담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과 생활력의 결여를 개탄하였던 기사에서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전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기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립심도 없이 사대(事大)를 추종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조선인들의 의식은 민족적인 자립심, 혹은 자부심이 결여된 상태였던 것이다.

아래에 인용된 기사 또한 외국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조선의 대 황제 폐하를 받드는 것을 주장한 독립협회 회원들의

75) “기원절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8월 10일.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문의 편집자가 충분히 어떠한 부분을 인용할지를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관점도 크게 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지간 대한 정부에 여러 대신 협판과 독립협회 회원들과 만민이 일제히 종로 거리에 모히여 여섯가지 의안을 문드러 대항데 폐하피 상주 하였더니.....데일도논 외국 사름 의게 의지하여 붓종지 말고 관인과 백성이 동심 합력하여 전제하시는 황제의 권세를 견고케 할일⁷⁶⁾ [강조는 인용자]

민족적 자립심, 혹은 애국심의 결여에 대한 비판은 장로교 계열의 신문인 <그리스도신문>에서도 발견된다. 류대영은 <그리스도신문>이 조선에서는 관리들이 월은(月銀)이나 받아먹으면서 자신만을 위하고, 나라가 독립을 하든 속국이 되어 종노릇을 하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는 점을 비판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유사한 진단과 비판을 <그리스도신문> 또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⁷⁾

3) 술, 담배, 노름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이 주장한 윤리적 강령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술과 관련한 문제였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로 대변되는 당시 개신교 계열은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을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의 강도나 횡수로 볼 때에 비판의 중심에는 술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서운 증생이 잇시니 그것은 곳 술이라 인도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술노 죽은 사름과 다른 병으로 죽은 사름을 비교하면 술노 죽은 사름이 더 만홀지라.....혼자만 술을 먹지 말거시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일절히 술을 쓰지말며 다른 사름의게도 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노라⁷⁸⁾ [강조는 인용자]

76) “열한가지 법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11월 9일.

77) 류대영, 2008, pp.32-33.

78) “술이 무서운 짐승보다 더 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2월 8일.

위의 인용문은 술을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하며, 조선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술로 죽은 사람이 많음을 들어 금주(禁酒)를 자신뿐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술에 대한 이 같은 철저한 경계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감리교 선교정책 차원에서 술이 조선의 개인, 사회, 그리고 나아가 민족에 큰 재앙(disaster)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파악한 선교사들의 판단에서 기인한다.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를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술을 무서운 짐승으로 지적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말며 술과 관련한 장사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술 취 흐느거슨 방탕함과 갓흔거시라 내가 전에도 말흐였고 지금 또 말 흐노니 이 거술 행 흐는 자는 하느님 나라를 엇지 못 흐리라.....오직 술 먹음으로 죄되느줄 알고도 짐짓 먹으면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세속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⁷⁹⁾

위의 인용문은 술을 마셔 취하는 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경계하면서, 개신교를 믿으면서 아직도 술을 마시는 사람은 세속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의 제목은 ‘교인은 술 먹지 못할 증거가 성경에 분명함’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 같은 가르침은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형성된 개신교의 금주 강령이 구한말에 전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술 먹음으로 네 가지 죄사 되느니 —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二 교회법을 어기고 三 부모와 형제 처즈의게 광언지설을 흐야 죄짓고 四 즈기몸을 망흐게 흠이라⁸⁰⁾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술이 죄가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이며 셋째와 넷째의 이유는

79) “교인은 술 먹지 못할 증거가 성경에 분명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2월 28일.

80) “교회 법에도 술 먹지 못할 것이 분명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3월 7일.

가족과 자신을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와 넷째의 이유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관점에서 술이 개인과 가정을 망치는 해악이 됨을 보여주는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각 개인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민족적 자립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개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국 조선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여긴 것을 감안하면 술처럼 그들이 지향하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윤리가 사회와 민족개화의 규범적 기초로서 여겨졌던 그들에게는 당시 조선인들이 일하지 않고 의미 없이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술을 위시한 담배, 노름 등의 모든 것은 타파의 대상이었다. 어떻게 본다면, 술, 담배, 노름 등이 그토록 심하게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포함한 개신교 계열에서 금지되었던 까닭의 다른 측면에는 생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윤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 조선에서 한 개인에게 강조되어야 할 노동윤리와 배치되는 다른 여가 수단들이 동전의 반대편과 같이 규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다만 그 물건이 사람의게 유익할거시 무어시뇨 깃히 생각하여 보건대 유익할거스 담배 연기와 재뿐이라 그재는 무엇에 쓰는지 알수 업시되 그 연기는 장구히 간슈하기 어렵도다⁸¹⁾

담배와 관련된 성경의 언급은 사실 상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에 성경기자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담배도 백해무익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술과 함께 끊을 것을 종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술과 담배에 이어 더 나아가 아래 인용문에서는 당시에 흔히 벌어지던 산송(山訟), 노름, 과부탈취, 남의 나무를 베는 일, 빗지고 값지 않는 일등을 모두 나열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실을 모두 버려야 함을 주장한다.

크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롬이 혹 작당하여 산송 하는 일과 혹 작당하여 과부탈취하

81) “담배 대단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2월 15일.

논일과 혹 술취하여 주정 혼일과 혹 노름하여 놈의 재물을 뺏는일과 혹 놈의 산판에 큰 나무 비는 일과 혹 놈에게 빚지고 아니 갚는 일이 잇서 종종 들이니 이거슨 무슨 일이던 지.....우리 행실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우리 밋는 거슬 7루친거시라⁸²⁾

한편으로, 술과 노름을 일삼는 것, 남의 재물이나 나무를 빼앗거나 빚을 갚지 않는 행태는 자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비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송이나 작당하여 과부를 탈취하는 사회적 관습의 문제 또한 이 같은 개인의 윤리적 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기사들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관점에서 당시에 만연해 있던 구한말 조선의 윤리적 야만(野蠻)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축첩, 조혼, 무명잡세(無名雜稅)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는 언급한 바와 같은 당시 윤리적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기사뿐만 아니라, 사회관습,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비판도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어있다. 당시의 가정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축첩(蓄妾), 그리고 자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혼(早婚), 또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고한 세금을 걷는 무명잡세 등이 비판과 개혁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혼인 하는데 큰 폐단이 두가지가 잇스니 첫재는 일즉 혼인하는 거시라 사름이 이십세가 넘으야 비로소 근골이 차서 무슴일을 하던지 낭패럽지 안케 하고..... 둘째 폐단은 혼인을 부모가 작명하여 주는 거시라.....셋재 외양과 처디가 피초에 대강은 곱하야 하거시여늘.....본처를 내어쫓고 첩을 엿는다 심지어 살륙이 난다⁸³⁾

무엇보다 개신교 계열 언론의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사회적 제도는 혼인과 관련된 문제였다. 혼인과 관련되어 개혁되어야할 관습으로 조혼과 축첩이 인용문에서와 같이 크게 지적되고 있는데, 우선 조혼에 반대하

82) “그리스도인 모본하는 일이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10월 30일.

83) “혼인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4월 19일.

는 논리를 살펴보면 결국 여기에도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가 기본적인 전제로 항상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적으로도 20세가 되어야 골격이 자리 잡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업을 가지고 노동할 나이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선에서는 아직 모든 측면에서 개인으로서도 자립할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결혼시켜 부모와 자식의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으며,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비판되고 있다.

또한 결혼의 당사자들이 결혼 상대를 스스로 찾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또한 좋아하는 마음에 따라 결혼 상대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자립을 이룬 개인의 모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의 문제 또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한 중에도 지방관들은 맞친 듯 취하니 듯하여 구습을 버리지 안코 홍논짓들이 납뽀 형송 헝기와 개폐문 헝기와 기생설시와 무명잡세 밧기와 재장과 장외 체지내여팔아 먹는다는 풍설이 민간에 남자헝니 넛재 한심헝 일이요⁸⁴⁾ [강조는 인용자]

축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점이 문제로서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반들이 축첩을 일삼으며 생업에 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들이 바라보았던 조선의 문제점이었다. 양반들이 생업에 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고, 축첩을 일삼는 것을 비판하는 맥락과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 무명잡세를 받고 기생들과 희락(喜樂)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 또한 윤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현실로 지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84) “교우 노병선씨 열람한 일, 이폭연속”,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10월 5일.

5.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의 처방윤리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지적되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그리고 사회 관습과 제도의 차원의 다양한 비판들은 그 실태에 대한 고발의 과정에서 이미 어떠한 처방이 제시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처방윤리는 상당 부분, 구한말 조선이라는 특수한 시기와 공간에 전파된 개신교의 노동윤리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한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노동을 통해 부지런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을 책임지고 근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배치되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축첩이나 조혼제도와 같이 개인윤리의 개혁과 사회적 관습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혼재하거나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비록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개인 윤리의 개혁과 사회적 관습의 개혁이라는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명료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구한말 조선의 실태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처방윤리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개인윤리

(1) 생업(生業)의 노동윤리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담론에서 개신교의 노동윤리(the protestant work ethic)는 구한말의 프로테스탄티즘을 개화 담론으로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업(生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살아가기 위한 노동은, 즉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

미한다.

모든일에 부끄러워 할야 조그일노 량식을 어더먹고 놈의게 이지러 짐이 없습이라 모든 악한것과 악한사름 무리를 피하고 슬취하지 아니할거시오⁸⁵⁾ [강조는 인용자]

이것은 사실상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적 체계질서에 대한 개혁인 동시에 모든 개인이 근면함으로 노동할 때, 조선 사회와 민족, 국가가 구한말의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벗어나 문명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윤리적 민족주의로 이어지면서, 특수한 개신교의 윤리가 조선 민족의 문명개화라는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농공상의 직업을 밧고라 호는게 아니라 구습에 물들어 라태하고 별제 위명으로 호던거슬 아조 바리고 사름마다 무슨 벼슬을 호든지 무슨 장수를 호든지 실정으로 조그 직분 다 다호게되면 우리 나라이 조연 부강출분 아니라 춤으로 대한민국 신민이 되리라 호고 그후에 주병과 실과를 논호와 먹을세 일제히 만세를 불오고⁸⁶⁾ [강조는 인용자]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직접적인 주장을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의 영어논설을 인용하여 제시한 아래의 인용문 또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선에서 가장 활발하며, 이들이 서양 사람과 같이 생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시키기만 하면 법률을 잘 준수하여 교회와 국가를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자라갈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월 구일에 발간호 독립신문 영어론설에 말호기를 조선에 예수교호는 사름들이 나라안에 데일 활발호 사름들이라 한번 교를 밧은후로 브터는 조그의 밧음들만 닷가 진익호 뿐 아니라 태서⁸⁷⁾스람의 생업호는 법을 비호기를 시작호고 잘 인출호는 신문지들을 귀호출 알고 넘을줄을 알아 새의스들을 넓히니 만일 이 사름들을 울케 인도호고 잘 교육만호면 생 각호는 새모양과 생애⁸⁸⁾호는 새법을 잘 본바다 배호고 또 나라에 법률 직히호 백성되기를

85) “그리스도인 모본하는 일이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10월 30일.

86) “독립경축회”,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11월 24일.

87) 태서(泰西)로 서양을 이르는 말이다.

힘쓰며 서로 심력을 합하여 교회를 받들고 국가를 충성으로 보호하기를 시험하며⁸⁹⁾ [강조는 인용자]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말은 바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vocation)을 다하는 것이라는 종교적인 동기부여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구한말의 선교사들은 개신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노동윤리에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조선사회와 민족의 개화와 자강이라는 명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등장하는 담론이 개화 민족주의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고리를 제공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각 백성이 직업을 가지고 국가와 가정에 충성하며 일심으로 살아갈 때, 나라가 자연스럽게 문명하고 부강하여질 것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윤리의 확산이 민족주의와 관련되는 서술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직업을 편안히 하여 우호로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남군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를 보존하며 사람사랑하기를 제몸까지 하여 전국 인민이 일심이 되고 국중에 도모지 놓고놓고 놓고먹는 사람이 업서서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요족하면 나라이 자연스럽게 문명하고 부강하여⁹⁰⁾

노동윤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개화담론로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반대로 노동외의 당시 사회악적인 개인윤리나 관습을 금지(禁止)시키는 윤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술과 담배, 축첩, 노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보수적 개신교 윤리는 이러한 것 대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한다는 내적인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소년들이여 무론 무슨일이던지 일 하는 사람을 귀하게 녀기고 어던 처지에 잇던지 일 아니 하고 놀고 먹고 놀고 입는 자를 천 하게 녀이라 우리의 의복 음식 거처가 다 일하

88) 생계(生計)와 같은 말이다.

89) “회중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2월 17일.

90) “우리교회가 흥왕하면 나라의 더욱 문명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6월 1일.

는 사람 수중에서 나오는 거시라 저 망 하여 가는 나라를 보라 님군이 방탕하고 신하가 탐학하고 백성이 나태 하여.....부즈런이 일 하는거시 세가지 요긴한거시 잇스니 一은 목숨을 살니는거시오 二는 마음을 달린하는거시오 三은 기운을 활발케 하는거시라⁹¹⁾

따라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할 사람들은 위에서 보여지듯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 종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놀고먹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천대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의식주라는 삶의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일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놀고먹는 사람은 누군가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동윤리는 개신교가 제시한 개인적 합리화의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동시에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을 개화민족주의로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학문과 교육

구한말 조선 사람들의 개인 윤리의 실태를 게으름과 생활력의 결여로 보았던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특히나 마음을 제대로 교육하고 바로 잡아야한다는 주장 또한 자주 언급되었다. 생활력의 결여는 생업을 가지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서 제일 목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같은 ‘영악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습성을 포함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어떠한 내면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제대로 교육된 마음은 이후에 나타난 애국계몽운동에서의 실력(實力)으로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조건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면적인 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⁹²⁾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외부적 조건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

91) “평생을 걱정 없이 지낼 계획”,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10월 18일.

92)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pp.97-98.

나라 속마음을 다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슨일을 행하던지 참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야 효험이 있는거시오 만약 외양으로 힘 쓰는데 하고 속마음은 조금도 두지 아니하면 리가 업심분 아니라 도리어 해를 보는 법이라⁹³⁾ [강조는 인용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행동이나, 외양만을 좋게 보이려는 행위는 결국 내면적인 힘을 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만 하지 못한 해(害)를 낳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참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실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같은 주장은 한편으로 참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윤리와도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마음을 학문과 지혜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고 지도가 로둔한거슨 하문을 그르쳐 학실을 넘니하며 지혜를 배양헌즉 그 어리석음을 가히 곳칠수 있겨니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조승지벽이 있는이논 그르칠수도 업고 곳칠수도 업느니 그병근이 놉을 업수히 녀이며 스스로 아난체 해야 도흔 말슴과 참 리치를 들을 때애밋지 안코 비방헌는 까닭이라⁹⁴⁾

요컨대,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겉으로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이나, 스스로 아는 체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비판한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교육받고 훈육되어야하며 그로 인해 내면적인 힘이 길러져야 함을 주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위한 마음의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윤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내면적인 힘을 길러야 조선이 문명진보할 수 있다는 개화담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개신교 계열에서 설립하였던 배재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학교들은 이 같은 개화담론을

93) “매사를 실상으로 할 것”,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8월 10일.

94) “교만으로 패 한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3월 9일.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전파할 수 있었던 장(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 제일 귀하고 부러운 일이 네가지가 잇스니 첫째는 국중에 학교를 만이 설립하여 인민을 교육하는 거시오 둘째는 감옥소안이 매우 정결하여 죄인이 다른 병날 럽녀가 업는 거시오 셋째는 군률이 매우 엄숙하여 병정들이 추호도 방심치 못 하는 거시오 넷째는 국중에 공한한 타이 업고 해마다 식목하여 도처에 슈림이 울밀 흥거시라 어느 나라 이던지 이 네가지 일을 힘쓰면 엇지 부갓이 아니리요.....이 네가지 일을 독실이 행하면 우리나라이 춤 즈주독립홀 기초를 굳게 세우겟다고 하더라⁹⁵⁾

(3) 안식일 윤리

개인적인 생활차원의 윤리에서 안식일 윤리는 약 100년 전의 천주교 자료에서 발견되기도 했던 것으로, 일요일에는 노동을 파하고 교회의 예식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천주교는 역사적인 박해의 경험과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상대적으로 개신교와 같은 강한 윤리적 정향을 상실하였고, 또한 본질적으로 교리 상 개신교의 노동윤리와 같은 윤리적 특성을 가지지 않았기에 초기에 발견되었던 윤리적 개혁에 관련된 주장을 당시에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신교의 안식일 윤리는 다른 윤리적 강령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신자들에게 요구되었다. 표면적으로 안식일에 철저히 노동을 중단하고 쉴 것을 권면하는 안식일 윤리는 노동윤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쉼’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육일동안의 수고로운 노동이 전제된 쉼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노동윤리와 함께 결합되어있는 생활윤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윤리가 강조되지 않는 천주교의 안식일의 개념과 내용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른일은 집에 머무는 손님 7지라도 일 하지 말나 호섯손즈 엇지 라마교 신부의 권도 쓰느거슬 본밧으리오 형데들은 조심하여 안식일을 잘 직히기를 브라노라 하니 듯는

95) “아라사에 열람한 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3월 17일.

사람들이 묵묵히 말이 업더라 우리는 브라노니 경향을 물론하고 교중 형제들은 여섯날 동안에 각기 직무를 좇아 힘써하고 주일에는 육신의 의식을 걱정하지 말고 령혼의 영생 하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찬미를 진심껏하기를 브라노라⁹⁶⁾ [강조는 인용자]

당시 개신교의 안식일 윤리는 마치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상당히 엄격하게 제시되었다. 다른 집에 머무는 손님까지도 일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식일 윤리는 철저히 육일 동안은 자신의 직무, 혹은 생업에 최선을 다해 종사한 이후 일요일에는 종교적인 예식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쉬는 것은 한편으로 평일의 수고로운 노동을 동시에 권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 북변에 있는 쇼혁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주주 독립의 마음과 종교를 숭봉하는데 열심히 대던 하여 안식일을 당하면 관인들은 정부 직무를 명지 하고 백성들은 생업의 소무를 휴식 하는고로 안식일에 큰 길거리로 다니며 볼 것 곁하면 장수하는 백성은 기가문을 하나도 열지 안코⁹⁷⁾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는 안식일에는 정부와 관인들은 자신의 직무를, 백성들은 자신의 생업을 정지하는 바람직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 사람들의 예시로 들며 안식일 윤리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습의 전제를 자주 독립의 마음과 종교에 대한 숭봉(崇奉)이라고 지적하는 점이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잘 쉬는 것은 종교적 윤리를 잘 준수한다는 점에서 종교에 대한 숭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안식일 윤리가 지켜지는 것이 자주 독립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적 개혁이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엮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단어사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안식일을 지키고 평일에는 금주, 금연하며 근면하게 일해야만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사회,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궁극적인 주장을 고려하면 자주 독립의 마음을 자립심(自立心)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6) “교우문답”,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11월 3일

97) “목사의 문답”,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11월 16일.

각처에 있는 회당을 다 보지 못하였시때 조세히 알수 업거니와 대개 주일오전에는 회당에 모히는 무리가 만코 오후에는 모히는 교우가 만치 못흐니 실노 민망한 일이라..... 이거슨 다 핑계흐는 말이라 거룩한 주일에 몇 번이던지 열심히 모히여 나리시는 복을 밧을 거시오⁹⁸⁾

당시 엄격했던 개신교의 윤리적 강령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높은 기준에서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인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⁹⁹⁾ 위의 인용문은 비슷한 맥락에서, 오전에만 예배를 위해 회당에 모이며 오후에는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일요일에는 몇 번이라도 열심히 모여 예배에 참석해야함을 강조한다.

일요일에는 소일거리 및 생계를 위한 모든 근로를 중단하고 여러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리스도신문>에서는 심지어 자기를 위해 하던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곧 그 일을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요일에 다른 일을 중단하고 교회 일에 참석하여 예배에 전념해야한다는 안식일 윤리는 학습세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윤리와도 함께 결합된 강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술, 담배, 위생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 당시 선교사들은 완전한 금주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도 종사할 것을 금지하는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세례 받을 자격에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제한을 받았다.¹⁰⁰⁾ 아래의 인용

98) “안식일을 지킴”,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7월 25일.

99)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p.105-107.

100) 류대영, 2001, p.108.

문에서도 술은 패가망신의 원인이 되며, 더욱 곤궁해지는 등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술을 금하라는 성경적 권고를 근거로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들어 금주를 권고하고 있다.

대개 술이란 거슨 동양 이나 서양 이나 개화한 나라이나 개화못한 나라이나 네져
년브터 지금까지 잇는 음식인데.....술노 하여 패가 하고 망신 하는 자를 유리가 종종 듯노
니 엇지 애석지 아니리오 우리 교회에는 술을 만이 먹는것만 금 하는 거시 아니라 혼 두잔
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아니라 술장스 하는 사름과도 상관이 업는지라 강례에도 술을 금하
라는 말슴이 잇시니 우리 형테들은 조심하여 술 끊키를 바라노라 술을 조선 안에서 먹는
까닭에 그 백성이 가산을 패하며 점점 곤궁도 하며 고생을 하여¹⁰¹⁾ [강조는 인용자]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罪)인지 아닌지에 관한 보다 엄격한 논증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성경이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술을 마시는 것 자체의 문제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9세기의 미국에서도 음주문제의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개신 교회가 금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금주 및 술과 관련한 직업도 엄격히 금지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¹⁰²⁾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술은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또한 재물을 축내는 원인으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타파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개신교 윤리에서 그토록 중시되는 노동을 통해 얻은 재물을 쓸데없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 결인과 죄인을 만든다는 기사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교우가 계주론을 지어 보내엿기로 기록호노라 술 갑시 혹 두석량 되리니 그 술
먹는날에 재물에 해되는 거시.....술이 깬 후에는 스지가 아프고 구미가 업고 눈에 정신이
업셔 맞치 중병 알코는 사름갓호니 이거시 패가망신 아니고 무어시오¹⁰³⁾

101) “계주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6월 23일.

102) 류대영, 2001, p.110.

103) “계주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9월 8일.

개화를 크게 해주는 물건은 술이고로 올케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것을 업시하기에
힘쓸지니 술은 바른 생애로 수고하여 모흔 재물을 빼아스며 결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
하며 협잡과 퇴물과 사정을 성행케하여 사무를 그르치고.....경제상 으로나 도덕상으로부터
술은 업시할 물건 이어늘 오늘날 까지 그대로 두니 괴이하도다¹⁰⁴⁾

술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종교적인 이유, 혹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
해 금지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배의 문제다. 아
래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담배는 술보다는 덜 자주 <조선그리
스도인회보>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주로 술과 비슷한 이유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되기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런 담배를 과히 먹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잇느니 힘 줄이 약 하고 가슴이 답
답하고 념뎃이 더 벌떡 벌떡 하고 슈전중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만
흐니라.....도모지 세계 상에 누구던지 다 담배를 끈으면 유익 흔거시 매우 만홀줄을 아노
라¹⁰⁵⁾

술이나 도박, 이방 종교, 축첩 등의 문제는 19세기 말 미국의 선교
사들이 다른 선교지에서도 없애려고 했던 사회악으로 간주된 문제들이었
지만, 담배는 한국에서 특수하게 더 추가된 사회악이었다.¹⁰⁶⁾ 그나마 술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계나 그 외의 구역에서도 다양한 언급
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 담배는 성경에 의해 언급되지 않는 그 이후 시기
의 기호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은 흡연을 종교적인 죄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¹⁰⁷⁾ 바로 당시의 이 같은 윤리적 강령이, 개신
교를 믿는다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개신교의 특수한 인식
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술과 담배는 금지되기도 하였지
만, 거기에 더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나타나는 술, 담배에 대한 담
론은 술과 담배를 노동윤리에 배치되는 사회악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보았

104) “없이할 물건”,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12월 29일.

105) “담배의 해로움이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6월 2일.

106) 류대영, 2001, p.110.

107) 류대영, 2001, p.111.

던 선교사들의 관점을 드러낸다. 술이나 담배, 혹은 더 나아가 노름과 같은 당시의 여가활동들은 그들이 보기에 최선을 다해 노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놀고먹는 시간과 관련되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며, 쓸데없는 지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금주와 금연에 대한 논리는 교인의 몸 자체가 영적인 성전(聖殿)이기에 몸을 깨끗이 지켜야한다는 내용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금주, 금연의 논리와 함께 노동윤리와 배치되는 비생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금주, 금연에 대한 논리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스이 일기가 매우 더웁고 장마가 대단이 심하니 진실노 삼가할때라 우리 교우들은 불가불 음식과 의복을 조심하여야 홀터이니 익지 아니한 실과를 먹지말거시오 탕슈를 끄려마시고 의복을 자조빠라 드러온 내음새가 나지말게 할것시오 아모리 더워도 배와 허리를 드러내지 말고 뜨거온 낮과 서늘한 밤에 묘섭 헉기를 혼결긋치 할지어다¹⁰⁸⁾

또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술, 담배 문제와 같이 생활상의 윤리로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을 들 수 있는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것과 함께 기본적인 위생을 지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생활과 몸에 대한 통제가 드러나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위생론’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위의 기사는 날씨가 매우 덥고 장마가 지속되니, 익지 않은 과일은 먹지 말고 물을 끓여 마시며, 옷을 자주 빨아 냄새가 나지 않게 할 것과 아무리 더워도 배와 허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 조선의 길과 집, 그리고 사람들의 더러움은 <독립신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머리를 자주 감고, 양치질을 잘 할 것, 그리고 심지어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것은 위생에도,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니 입을 다물고 다닐 것에 대한 세세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위생상, 그리고 미관상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생활의 합리화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내세뿐 아니라 현실에

108) “위생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7월 5일.

서의 삶 또한 매우 중시하였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당시 개화담론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관습

개인윤리의 개혁과 사회적 관습의 개혁은 같은 윤리적 개화를 통한 조선의 문명개화라는 목적을 위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주장의 의도는 사실상 중복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특히 노동윤리를 통해 개인의 노동을 통한 자립이 개인윤리의 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강조되었다면, 사회적 관습의 개혁은 이 같은 개인 윤리의 개혁을 방해하는 사회적 관습과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제사

제사문제는 중국, 일본, 그리고 조선에서 시작된 천주교에 대한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¹⁰⁹⁾으로, 교황청의 조상제사금령으로 인해 개신교보다 약 1세기 먼저 전파된 천주교는 기나긴 박해의 역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구한말 조선의 개신교가 제사에 대해 반대한 이유를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통해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숭배로 간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상신은 진정한 신(神)이 아니기에 숭배나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제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한 관습을 버릴 것에 대해 주장의 맥락과 표현을 잘 살펴보면 이 같은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제사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아무데도 ‘쓸모없는’ 악습(惡習)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신교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조상제사가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그 주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이유에 더해 이것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관습이라는 점 또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마

109) 강인철, 2006, pp.29-31.

치, 술과 담배가 개인 윤리의 개혁과 노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제사라는 관습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선의 개혁에 도움이 되기에 버려야 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은 음력으로 넷해를보내고 새해를당함때 조선사람들이 무론상하하고 생각하기를 정조하례를 정성으로 지내며 귀연에 조상신을 효성으로 받들어 조상을 섬긴다하나 근본을 섬길줄 모로니 극히한심하도다 크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와갓지아니하니 일년동안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무스히지낸 거시 감사하며 주의 행한 바를 자세히 생각하여 무슴그른 일을 하였던지 뉘우쳐 곳치기를.....구습의 그릇거슨 아조부리고 새해는 새마음을 먹어 착한일을 었더케 행하자 작명하며 매스를 크리스도의게 의뢰하며 도아주심을 브랄지니라¹¹⁰⁾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언급과 함께 제사문제를 구습의 그릇된 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착한 일을 작정하는 것과 연결 지어 주장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제사를 반대하고 버릴 것을 주장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구습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좋은 행실을 작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사문제에 대한 반대가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 사회적 관습의 개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지점은 아래 인용문에서 다시 확인된다.

둘재 타국은 그 나라 성군 현신과 유명한 사롬의 공덕을 털석에 올녀 전국 인민이 나녀 로소 업시 그 일흠을 알고 스업을 흠모케하되 우리나라는 유공헌 영웅 호걸이 잇섯서도 다문 그 주손이 일년에 한번씩 쓸대업는 제스나 지내고 인민은 막연부지하니 셋재는 타국은 정부가.....공원과 서적관과 박람회와 궁궐이라도 인민의 유람을 허락하야 죠흔 거슬 여민 공락하되 우리나라는 백성이 죽도록 세나 밧치고 백성을 위 하여는 유람을 곳 하나도 업스니¹¹¹⁾ [강조는 인용자]

이 내용은 제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기사가 아닌, 조지 워싱턴 기

110) “논설 천제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2월 10일.

111) “화성돈 기념비”,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9월 20일. 여기서 화성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을 의미한다.

념비를 생각하며 당시 조선이 아쉬운 세 가지 점을 서술한 기사이다. 첫째로 미국이 독립할 당시의 인구가 오백만이었지만 독립을 쟁취하고 국세를 신장시켜 부국이 되었는데, 조선은 그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국세가 약함을 안타까워했고, 둘째로는 미국은 공덕을 기릴 만한 사람의 이름과 사업을 기념비를 통해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반면 조선에서는 영웅을 위한 쓸데없는 제사만 드릴뿐 백성이 기념을 통해 실질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실상 영웅에 대한 제사가 종교적인 근거를 통해 비판되 기보다는, 백성의 개화와 나라의 진보의 관점에서 무용(無用)한 관습으로 비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제사에 대해서 다른 많은 기사에서 종교적인 이유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대되고 있으며, 제사문제가 이 기사가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개신교 계열이 제사를 개화에 배치되는 하나의 쓸모없는 악습으로 여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전히 조선이 개화되지 못한 상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워하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제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름이 만물보다 귀흔즉 물건을 헛되어 쓰지 말지라 헛된 우상이며 집안에 터쥬 컬닙 성쥬 부군과 부모의 제스가 다헛된것이니 이후 부터는 이거슬 다버리고 하느님께 공경하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혼즉.....대답하되 제스를 지낼 때의 부모가 와서 잡스시더뇨 도라가신 부모가 엿지 잡스실수가 잇겟느냐¹¹²⁾ [강조는 인용자]

(2) 혼인제도 : 축첩 및 조혼금지

제사문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에 앞서 천주교에서 18, 19세기에 걸쳐 혼인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천주교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통혼권을 형성했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던 축첩과 중혼(重婚)에 반대하고 또한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는 등 당시 천주교 신앙공

112) “허실을 변론함이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2월 23일.

동체는 상당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¹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개혁은 당시 천주교 신앙공동체내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모습을 보였으며,¹¹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조선의 진보와 개화라는 목적의식과 크게 연결되지 않아 민족주의 담론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혼(早婚)의 문제는 흥미롭게도 천주교에서 지적되지 않은 관습인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조혼을 악습으로 규정하고 결혼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데삼은 밋는 교우가 밋지 아니 혼는 사롭과 혼인히지 말기를 권명홀거시오 데 스는 녀즈의 나히 십팔세와 남즈의 나히 이십세 전에는 성혼히지 말거시오¹¹⁵⁾

개신교 계열에서 축첩과 조혼을 금지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주장들은 사실 노동윤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조혼은 이른 나이에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을 결혼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자립과 사회적 생산성에 모두 방해물이 된다는 논리로 비판되었으며, 축첩에 대해서는 양반들이 노동하기보다는 축첩을 일삼아 가정을 망하게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앞서 언급한 노병선의 ‘혼인론’에서 명확하게 주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에 반대하고, 믿는 사람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것은 천주교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축첩이나 조혼의 반대 근거가 노동윤리와 연결된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더러운 악습은 부자라 귀인이라 혼는 이들이 첩두셋을 두고 밤낮 희학으로 세월을 보내고 큰 마누라니 적은 마누라니.....¹¹⁶⁾

113) 조광, 2010, pp.253-257.

114) 조광, 2010, pp.258.

115) “연환회”,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5월 30일.

116) “부인의 교육이 제일 급무”,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2월 15일.

전술한 바의 개신교 세례 문답에 첩(concubines)을 두고 있는지의 문제가 포함되어있을 만큼, 축첩의 문제는 금주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함께 핵심적으로 다뤄져야할 윤리로 여겨졌다.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개종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첩과의 관계 역시 정리되어야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로 첩을 두고 있는 계층이 부자나 양반 계층이었기에 초기에는 이 세례규정에 위배되는 이들이 별로 없었지만 개신교가 중류층 이상으로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다.¹¹⁷⁾

이처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다뤄지는 혼인과 관련한 축첩과 조혼은 금지되어야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축첩은 우선 종교적 관점에서 일부일처제를 주장하는 기독교의 특성인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망하게 하고 노동윤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정과 사회의 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깔려 있기도 했다. 축첩은 종교적 관점에서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에서도 반대했던 것이지만, 조혼에 관한 문제제기는 마치 개인 윤리의 금연의 문제와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근거보다는 노동윤리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다.

(3) 신분차별 금지와 여성교육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제사나 혼인문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조선의 개화가 근거로서 주장되었던 문제로 신분 차별, 여성차별에 대한 반대와 여성교육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종교적 전제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른 기사들 보다 더 직접적으로 문명 진보와 개화라는 목적의식 속에서 신분차별이 금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여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 교우들이 태극기와 십자귀를 갖치달고 대군주 폐하 탄신을 경축할 일은

117) 류대영, 2001, p.107.

꿈에도 못생각하였다고 하나님 압해는 지천한 사람도 황태와 등등이니 사람의 권리가 진
쥬함과 백성이 나라의 근본됨이 집의 괴초와 곱흔 석과 개화는 공평을 주장함과 여인을 공
경하고 교육하여야 나라가 잘 될 일을 설명한 후에 국가를 노래하고.....대군주 폐하 만만
세와 왕태즈 던하 천천세를 환호하고 다 혼연히 파회하더라¹¹⁸⁾ [강조는 인용자]

위의 기사는 1897년 8월 23일 고종의 탄신일을 기념해 각 교회의
교우들과 백성들이 가졌던 경축모임을 내용으로, 찬송과 기도순서 이후 윤
치호가 다소 긴 연설을 통해 조선이 개화가 되기 위해 이뤄져야할 것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교육해야 하며, 관인이 아래
에서 백성을 섬겨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의 인용문에 주장되고 있는데,
이후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인정하고 여인을 공경하고 교육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임을 주장한다. 이 같은 모임에 대한 기사를 단순한 언
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기사와 인용되는
내용이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윤치호의 주장을 통해 <조선그리스도
인회보>의 관점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인용된 한 교우, 김연근의 편지에서도 신분과 직업, 또한
성별로 귀천(貴賤)을 구분하였던 구한말의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김연근
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개화의 근
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이 진정한 천상세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 교
회만의 다행이 아니라 나라의 다행으로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는 점이다.

개화의 근본이 만일 우리 하나님 도가 아니면 능히 못할 거슬 확실히 맞을지라 우
리 나라에 유도가 잇스나 이 도는 귀천을 분별하고 명분을 명 하여 평등치 아니하니라.....
이러하면 이전 귀천과 명분이 차등이 업서 우리 나라가 장췌 던상 세계가 되리니 이러하면
우리 교회만 다행홀뿐 아니라 일국이 다행함이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 하리오 하였더라¹¹⁹⁾
[강조는 인용자]

또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과 함께 여

118) “대군주 폐하 탄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9월 1일.

119) “본회 교우가 한 편지”,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4월 28일.

성에 대한 차별 또한 사회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관습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도 기독교적인 관점의 평등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잘 교육시키면 술, 담배, 축첩을 일삼아 나라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성들보다 더욱 나라의 진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집안이 흥함과 나라이 부함과 백성이 강함이 전국 녀인을 교육시키는데 달녀거늘 슬프다 동양에 인도와 청국과 대한을 보면 녀인을 7르치기 않고 무슴 물건긋치 녀여 집안에 가두고 즈식이나 나게하며 음식이나 문돌게 하며 잘 잘못간에 구박이나 하며 심하면 두드려 주며 녀편네가 무엇안다 주제넘게 혼다하며¹²⁰⁾

아래의 기사는, 전국의 여인들을 잘 교육시킬 때 나라와 백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시아에 인도와 청나라, 그리고 조선이 이러한 측면에서 뒤쳐져 있으며 조선은 특히 여성에게 가사(家事)만을 지우며 심한 인격적 폭력을 서슴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여성에게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강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잘 교육시킴으로써 한편으로 남성들이 망쳐놓고 있는 조선의 진보와 개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학문을 7르쳐 행실이 현숙한 부녀는 남주보다 나흔이가 만코 학문이 무식하여 무음이 완악한 사나희는 녀주만 못흔이가 만흐니 남녀를 물론하고 인재를 교육하는데 잇심이라.....지금 녀주의 문건은 엇지 그리 고루하고 남주의 천대도 만히 밝으며 비루한 행실도 만히 잇노뇨¹²¹⁾

사실상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이 노동윤리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계층적으로는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양반들인 동시에 술, 담배, 축첩,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 있는 남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기사들은 같은 맥락에서 남녀가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당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120) “부인의 교육이 제일 급무”,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년 2월 15일.

121) “여학교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7월 7일.

적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여성이 조선의 개화와 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양반 남성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여성이나 상민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교육시킨다면 나라의 진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V. <독립신문>에 나타난 ‘조선병’과 개화민족주의

1. <독립신문>의 발간

<독립신문>은 1986년 4월 7일에 서재필에 의해서 발간된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당시 개화담론이 본격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신문>의 발간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서재필과 온건개화파, 그리고 기독교 세력의 역할 비중에 대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재필에 의해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서재필이 당시 어떤 세력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광린은 윤치호를 비롯한 기독교 세력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¹²²⁾, 신용하는 당시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온건개화파가 서재필과 함께 창간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¹²³⁾

이광린은 서재필이 귀국할 때부터 신문간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으로 임명된 이후에 신문간행을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인 주도의 신문창간에 있어 당시 한성신보(漢城新報)를 경영하던 일본인들의 반대가 주된 장애물이었는데 1896년 2월 1일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일본의 반대압력이 사라지게 됨

122) 이광린,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신단학보』 제39호, 1975, pp.80-89.

123) 신용하, 2006, p.17.

으로써 서재필이 보다 자유롭게 <독립신문>을 창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그는 서재필의 창간동기를 첫째로는 국민을 계몽해야겠다는 생각과 귀국 직후 접촉한 사람들로부터의 영향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귀국 후 정동에 숙소를 둔 서재필은 외국 선교사들과 외교관, 그리고 윤치호와의 교제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치호가 귀국 전에 신문창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들어, 윤치호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¹²⁴⁾

이처럼 이광린이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에 윤치호와 선교사와 외교관을 비롯한 세력의 영향력을 주로 강조한 반면, 신용하는 이광린을 비판하면서 <독립신문>은 국내 개화파 중 갑오개혁내각이 된 온건개화파가 서재필의 개인적 역량을 활용하여 창간한 신문이라고 주장한다. 서재필은 스스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온건개화파의 요청에 의해 귀국하였고, 서재필에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를 별다른 업무가 없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유길준 등을 통해 신문창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신문창간자금 3000원을 정부예산에서 출연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하는 온건개화파들이 정부가 대여한 정동(貞洞)의 건물을 사옥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당시 신정부를 구성한 그들의 주장을 일본의 한성신보에 대항해 펼칠 수 있는 언론매체를 만들어야 했기에 결국은 서재필의 사유기업으로 등록된 <독립신문>의 창간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²⁵⁾

이광린과 신용하의 주장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광린은 결국 온건개화파가 제공한 물질적, 정치적 조건보다는 아관파천이후 갑오개혁 내각이 사라진 이후 <독립신문>을 주필로서 창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서재필 개인의 신문창간 동기와 그에게 신문창간에 영향을 미쳤을 세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신용하는 창간과정에 있어 물질적, 정치적 조건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신문창간을 주도했던 온건 개화파의 정치적 의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광린의 주장이 서재필이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용하의 지적과 같이 당시 물질적, 정치적 조건을

124) 이광린, 1975, pp.82-85.

125) 신용하, 2006, pp.17-19.

제시하지 않은 온건 개화파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립신문>의 창간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그의 주장에서 간과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사료의 인용이나 주장에 있어서도 이광린이 모호하게 예측했던 부분을 신용하가 사료의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부분은 설득력 있게 여겨진다.

신용하는 <독립신문>의 창간과정에서의 국내 개화파와 갑오개혁 내각의 물질적인, 정치적인 지원과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나치게 <독립신문>이 ‘한국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해서, 한국정부의 지원하에, 한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신문’¹²⁶⁾이라는 주장을 강박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외의 다른 세력의 영향을 일체 부정하는 다소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¹²⁷⁾ 예를 들어, 신용하는 <독립신문>의 국문전용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독립신문> 이전의 종교계의 국문전용에 대해 선교가 목적이었을 뿐, 민주주의 사상이나 민족주의 사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1년 후에 발간되었던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측면의 개화담론이 <독립신문>에서도 또 다른 어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신용하의 주장은 <독립신문>의 민족주의적 순수함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비록 <독립신문>의 창간과정에서는 온건 개화파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아관파천으로 인해 특히 서재필과 협력하였던 갑오개혁 내각 중 유길준이 일본으로 망명하고 친일내각이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창간 이후 <독립신문>에 담기게 되는 내용은 서재필이라는 개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개신교가 미쳤을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우선 서재필 자신이 개신교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광린이 언급했던 특히 윤치호를 비롯한 서양 세력과의 교제권은 창간과정보다는 창간 이후에 담기는 <독립신문>의 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126) 신용하, 2006, p.19.

127) 예를 들어, 신용하는 <독립신문>의 국문전용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독립신문> 이전의 종교계의 국문전용에 대해 선교가 목적이었을 뿐, 민주주의 사상이나 민족주의 사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독립신문>을 간행할 때, 이광린은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 Trilingual Press)의 시설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지만¹²⁸⁾, 신용하가 반박하는 것과 같이 서재필 자신이 인쇄기를 오사카에서 주문하여 본래 3월 1일에 창간하고자 하였지만 인쇄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월 7일에 창간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 것을 볼 때,¹²⁹⁾ 이광린의 주장은 추측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삼문출판사에 관계하던 한성사범학교 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창간 당시 인쇄직공 두 사람을 빌려주어 도움을 주었고, 이후에는 호머의 동생인 아처 헐버트(Archer B. Hulbert)가 1897~1898년 동안 영문판(The Independent)을 편집, 제작하였던 서재필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¹³⁰⁾

요컨대, <독립신문>의 창간과정에서는 온건 개화파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과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관파천 이후 갑오개혁 내각이 붕괴된 이후에는 온건 개화파가 제공한 기반위에서 <독립신문>의 내용은 서재필 개인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필을 통해 <독립신문>에 담긴 개화담론은 그가 형성하고 있었던 윤치호를 비롯한 개신교 교제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재필은 국문판과 영문판의 논설(Editorial)을 담당하였고, 주시경이 국문판 담당 조필로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였다. 영문판의 경우는 서재필 자신이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면서, 아처 헐버트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직접적으로 주장되는 여러 측면의 구한말 조선의 부정적 현실과 이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독립신문>의 논설에서 ‘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년 먼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창간시기가 <독립신문>보다 1년 후였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이 개신교 계열의 언론에 차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인 비판이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라는 언론매체는 1897년에 창간되었지만 조선에 대한 생활 윤리적 차원의 선교정책과 개화를 목적으로 하는 윤

128) 이광린, 1975, p.86.

129) 신용하, 2006, p.44.

130) 신용하, 2006, p.51-52.

리적 강령은 이미 1880년대부터 시도되어 1890년대에 서서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것이 신문의 창간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시점이 1897년일 뿐 <독립신문>의 발간과 그 내용이 선행되었으며,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그 영향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서재필이 갑신정변 이후 미국에서 지내다가, 박영효의 요청으로 인해 12년 만에 귀국하여 정동에 숙소를 잡고 지내는 가운데¹³¹⁾ 이른 시기부터 먼저 조선에 들어와 선교활동과 외교활동을 전개하며 조선의 개화를 고민했던 당시 정동의 선교사들, 미국공사관계자들, 그리고 윤치호와 함께 나눈 조선의 현실과 필요한 개화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내용적으로 <독립신문>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조선병’에 대한 비판과 주장되는 윤리적 개화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선의 개화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독립신문>의 ‘조선병’ : 유의유식과 노동윤리

<독립신문>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드러나는 바와 유사한 구한말 조선에 대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병(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등의 개인 윤리적 차원의 비판이나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관습에 대한 비판 등이 동일하게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등장하지만,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이를 ‘병’이라 지칭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태를 ‘병’이라고 표현하는 독특한 어법을 보여준 것은 <독립신문>이다. 당시 조선의 실태를 ‘병’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부터 논설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조선병’이 논설에서 등장하는 시점은 1897년으로 아래의 인용문에서 처음으로 ‘조선

131) 이광린, 1975, pp.74-76.

병'이라는 말이 <독립신문>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로 무슨 폐단이 잇스면 그 폐단의 근본을 차져 만일 병이 잇스면 그 근본을 고치논거시 일흔 법이라 지금 조선 병은 조선 안에 잇는 인민이 학문이 업고 교육이 업서 외국 사름들과 만수에 절어 불슈가 업논고로 조선을 아모 나라라도 와서 임의 대로 하게 되얏고 인민이 잔약하고 어리석은 7달에 학문 잇고 강흔 사름들이 외국서 와서 나라를 뺏앗고 습흐면 뺏고 하고 습픈 일이 잇스면 혼거시 조선 사름들이 그 사름만 못한 7둑이니 그 사름들만 못한 7둑은 학문이업는 까둑이라 그러 혼 즉 조선 병을 곳치라면 인민이 아모 조록 외국 사름 모양으로 학문을 배호고 외국 사름모양으로 생각을 하며 외국 모양으로 행실을 해야.....인민이 부강해야 꾸부러지고 기우려진 일이 업서 법률과 상벌이 분명 하게 되기를 바라나니는 복합도 말고 오늘날 브터 무음을 합 하여 못된 넷적 풍속을 바리고 문명 진보 혼 일애 힘을 쓰논거시 병 근본을 고치고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노라¹³²⁾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독립신문>은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조선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조선이 병든 이유를 다른 것보다 '조선사람'에서 찾는 <독립신문>의 관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조선의 폐단, 혹은 조선의 문제라는 말보다 조선의 '병'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문제를 매우 부각시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조선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사람'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 사람들이 학문과 교육이 없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조선에 근대적인 교육체계가 없으며, 또한 서구적 지식이 교육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교육이나 학문을 넘어 생각과 행실, 그리고 생활 전반을 규율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명진보한 나라의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행실, 생활 전반에 걸친 규율과 자기통제를 배워야한다는 것으로 <독립신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독립신문>이 제시하는 문제는 조선의 유의유식(遊衣遊食)과 노동윤리의 부재이다.

<독립신문>의 '조선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노동을 통해 생업을

132) "논설", <독립신문>, 1897년 2월 13일.

가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조선병’ 담론에 대해 개신교의 노동윤리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거의 조명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독립신문>에서 자주 반복하여 언급되는 ‘병’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에 의지해 살아가는 양반남자들과 무명잡세를 부과하는 관리 등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살아가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상태와 그것을 더욱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법률과 정부,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 다양한 측면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개신교 노동윤리의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이 자신의 밥벌이를 하지 않고 유의유식하는 상태가 조선에 만연한 ‘병’이라는 비판이 중점적으로 <독립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의 핵심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재필이 개신교 세력과 어떠한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서 발견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력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도 동일하게 생업(生業)을 가지는 것, 그리고 생애(生涯)하는 것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신문>의 ‘조선병’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동윤리의 부재(不在)’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독립신문>에서 비판되는 무명잡세를 걷는 것, 여성과 신분의 차별로 인한 부당한 대우, 제사, 조혼, 축첩 등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근거에도 이 같은 요인들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유의유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깔려있다. 예를 들어 무명잡세를 걷는 것은, 노동을 통해 열심히 재산을 축적한 이들의 빼앗아 관리들이 놀고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양반 남자들은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분계층이라는 주장이 이 여성과 신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에서 엿볼 수 있는 전제이다.

이처럼 조선에 놀고먹는 사람이 인구 비율상 너무 많아 조선이 문명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독립신문>의 ‘조선병’ 담론은 <독립신문> 전

반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장이며, 더욱이 개인의 노동윤리를 단순히 개인 차원의 윤리적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조선의 문명진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후술할 인민과 정부의 의무 등이 노동윤리의 논리와 함께 등장하는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다.

조선 사림들이 세계에 남만 못 하지 안흔 인종이언마는 지금은 세계에 데일 잔약 하고 데일 가란흔 나라히라.....재물 모호고습픈 생각이 적기도 흐거니와 모홀 슈가 업논 거시 뜻기논 까뉘에 견딜 슈가 업고.....이러케 엇어 먹기가 쉬흐니까 세상에 노논 사림이 만히 잇고 세상에 노논 사람이 만히 잇스즉 생각 흐논 구석이 적은지라 나라히 조연히 가란해질거시오 나라히 가란 흔 것보다 더 큰 해가 이 깝뉘에 잇는거슨 사림들이 모도 남의 게 의지홀 생각 밧피논 업논지라.....나라히 조슈 독립이 되랴면 그 나라 백성들이 살기론 조슈 독립흐는 뜻스로 살아 의식을 조그 손으로 버러먹게 하고 의식을 사름마다 제 힘과 제 재조와 제 밧천을 가지고 버러먹고 살게 될 디경이면 그 사림이 조연히 조슈독립홀 마음이 날지라.....그리흐즉 도모지 병 근본인즉 조선에 놀면서 공히 남의게 의지하야 살랴는 사림이 만흔 깝뉘이더라¹³³⁾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이란 단순히 조선인들의 정서적인 문제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벌어먹고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독립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남의 수입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조선이 문명진보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관리들이 무명잡세를 부과하는 원인인 동시에 유력한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지하여 스스로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양반 남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이고, 여성들과 상민계층의 교육과 노동을 막을 뿐 아니라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즉, <독립신문>에 의하면, 실상 조선의 ‘병’이란 특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생계(生計)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는 베버가 제시한 바와 같은 ‘현세내적금욕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은 현세내적금욕주의적인 개인의 노동이 이뤄지지 않는 조선 사회의 양태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비판

133) “논설”, <독립신문>, 1896년 12월 8일.

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의식(衣食)을 벌어먹고 사는 것이 개인의 자주독립 뿐 아니라 나라의 자주독립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선결조건이라는 논리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유의유식하는 상태가 특히 개신교 노동윤리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왜 스스로 벌어먹지 않는 상태가 병(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개인이 생업(生業)을 가지는 것, 생애(生涯)하는 것이라는 표현들로 강조되었던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가 동일하게 <독립신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과 친척, 그리고 집안의 놀고먹는 사람들이 모두 재물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재물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만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다는 언급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위의 논설은 상황이 이렇기에 얻어먹거나 노는 사람이 조선에는 너무나 많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인심 좋은 척을 하면서 놀고먹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욱 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술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잘못된 구제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남에게 의지하도록 하여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부분과 같은 비판이라 볼 수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법률을 지키고 자신의 힘과 재주로 자주독립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을 불법으로 빼앗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타난다. 조선 사람들이 노동윤리를 가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법률과 사회의 기강이 노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 또한 <독립신문>이 지적하는 조선의 문제인 것이다.

세계인민 중에 데일 불샹헌 백성은 조선 백성인데 그 불샹헌 꺾똥은 다름이 아니라 남의 나라 인민들은 국중에 법률이 쇼샹 하고 학문이 진보하야 사름마다 법률문 범 하지 아니 하고 조그 힘과 재쵸가 잇스면 버러 먹고 세상에 조쵸 독립헌 백성이 되야 빈부 귀툰간에 사름마다 조그 신앙에 조유 권을 꺾지고 잇스며 사름마다 조그 직분문 허거드면 세상에 무셔울 것도 업고 뉘게 텃태 밧을 리도 업논지라.....데 손으로 버러먹고 사는 사름 들도 언제 엇더케 조그의 재산을 남의게 뺏길는지 언제엇더케 유 세력한 사름의게 욱을 볼 논지 모로논지라¹³⁴⁾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독립신문>은 논설 전반에 조선이 문명진보를 이루고 있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을 인구의 대다수가 유의유식하며 남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조선병’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립신문>은 이에 더해 ‘조선병’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지만, ‘조선병’과 유사하게 지적된 조선의 윤리적 실태를 ‘대한 사람의 병통(病痛)’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싣고 있다.

거짓말 잘 하는일 서양 풍속에 거짓말 장이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라.....대한 풍속에는 거짓말 잘 하는 것이 영웅이라 말은 행실을 도라 보고 행실은 말을 도라 보면 줄장부라 생원님이라 하여 사롱공상 각 스업에 남을 잘 쇠키는 것만 주장하야.....의심몬 만 할 뿐 의라 혐의를 심히 보아 조금몬 서로 규각이 나면 오래도록 혐의를 품고 노함을 감초아 일을 서로 방해롭게 하고.....객기(客氣) 부리는 일 대한 인민이 턴하에 유명 하게 잔약 하나 그 중에 객기 부리는 사름들은 만혀서.....객기도 남 쇠키는 훈 슈단이라¹³⁵⁾ [강조는 인용자]

위의 내용들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하고, 의심하면서 서로 믿지 않고, 객기를 부리고 허풍을 떠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은 개인이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노동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의심만하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행태에 대한 비판인데, 이 또한 부지런한 노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윤리적 덕목들에 대한 지적이라는 점에서 ‘조선병’ 담론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에서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욕이지만, 조선에서는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내용과 조선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풍속을 바꾸기 위해 학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34) “논설”, <독립신문>, 1897년 6월 10일.

135) “대한 사람의 병통”, <독립신문>, 1899년 4월 7일.

하느님을 공경하는 나라사람들은 그중에 유명한 사람 일수록 모름이 정대하여 신을 일치 안는고로 큰 스업을 일우거니와 동양에 요사이 소위 영웅이니 호걸이니 하는 사름을 붙진대 도모지 모름에 쥬장이 업서 거짓말 헝기와 늡을 속이기로 일을 삼으니 실노 한심 헝도다 여러 학원은 다만 재쵸만 닥글 생각을 말고 몬져 모름속에 유장을 단단이 세운 후에 유익훈 학문을 만히 배와 우리 나라 후쟁의 스펡가 되기를 원헝노라¹³⁶⁾ [강조는 인용자]

3. <독립신문>에 나타난 개화담론

<독립신문>은 조선의 핵심적인 ‘병’을 유의유식하며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나타나는 노동윤리와 다양한 윤리적 강령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 개화와 문명진보의 문제로 여겼던 것과 같이 <독립신문> 또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조선의 개화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조선병’과 관련된 논설에서 각자가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었듯이, 무엇보다 원문의 표현대로 생애(生涯)하는 것이라는 노동윤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강조되었고, 그 외의 교육과 학문하는 것, 축첩, 조혼, 제사, 신분차별과 여성차별 금지 등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등장한 다양한 윤리적 개혁의 이슈들이 <독립신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독립신문>에서 주장되는 ‘조선병’ 담론과 노동윤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의 영역의 개화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윤리 : 생애(生涯) 하는 것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모두 등장하는 표현으로 생업(生業)과 생애(生涯)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둘 다 개인이 자신의 노동

136) “배재학당 하계방학”,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7월 4일.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윤리가 부재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독립신문>은 ‘병’이라 부르며 매우 강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를 낸 것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조선병’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독립신문>이 주장한 생업, 생애의 노동윤리가 정부의 직무, 인민의 직무를 주장하는 다른 맥락 속에서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은 유의유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국가 법률과 사회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있으며, 정부와 인민의 직무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유의유식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규율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업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신문>의 정부와 인민의 직무와 의무가 노동윤리와 함께 결합되어 주장되고 있는 측면이 아래 인용문에서 나타난다.

지금 대한이 성호 나라라고 흠 슈는 업는 것이백성의 정세가 말이 못 되고 국중에 유의 유식 하는 사람이 십분에 구요 도적과 협잡배가 한량이 업시 잇스며 법률과 규칙이 서지를 아니하야 조령을 백성이 시행 아니 하는 것이 만히 잇스며 민정을 몰으논테 하는 관인들이 만히 잇스며 외교로 말 하더라도 타국이 대한을 능멸히 녀쳐 다몬 국권을 빼을뿐 아니라 내정에 끼지 간섭을 하야 일흠은 주췌 독립국이나 실상은 주유하는일이 적은 일 외에는 업스니 엇지 병이 업다 하리요.....첫째 인민의 직무는 무엇인고 하니 다몬 정부 법령을 시행 흠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올흔 법령을 몬드논지 아니 몬드논지 살펴야 흠터이요¹³⁷⁾
[강조는 인용자]

‘대한 인민의 직무’라는 제목의 위의 논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의유식하는 사람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의 ‘병’을 지적하면서 대한에는 도적과 협잡배, 한량이 많고 백성이 행해야할 직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들이 이러한 국내 상황을 모르는 체 하며, 또한 외교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가 대한의 국권을 빼앗거나 내정을 간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이 명목상으로만 자주독립국인 실상을 비판한다. 따라서 이 논설에서 나타나는 대한 인민의 직무는 정부의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뿐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법령을 제정

137) “대한 인민의 직무”, <독립신문>, 1898년 3월 3일.

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한 감시해야하는 것이다. 주장의 결론만을 놓고 보면, 인민의 정부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주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유의유식하는 이가 많아 법률의 기강이 서지 않고, 백성과 관리 모두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병들어있다 라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윤리의 확립을 위해 함께 행해져야 하는 인민의 직무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은 노동윤리의 확립을 위해 인민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유의유식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식(衣食)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인용문은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름의 의복 음식은 다몬 사름의게몬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이아니라 전국 흥망의 의복 음식이 잇고 업는데 잇는것이라..... 의복 음식을 정부에서 공히 줄슈는 업스니 생애 홀 방침을 일너 주는 것이 곧 의복 음식 주논이와 고히것이라.....첫째 정부에서 백성의 의복음식은 넉넉케 홀 도리논 법률가 장영 규칙을 엄히 세워 인민의 돈을 일호 일리라도 법률 외에 취히지 인게 하여야.....둘재는 인민들이 정부 법령을 밋어 재산이 넘너 업시 지탱 할터이요 법률노 관인들이 보호 하여 줄줄 알 것 고히면 아모리 학문 엄논 백성들이라도 내 힘대 데 직쇼것 벌냐는 생각이 날터이요.....위선 국중에 유의유식하논 사름이 적어질 터이라 협잡 하여 엇어 먹고 살 기미가 조곰치라도 잇스면 그 길로 덤빌 사름들이 똌 흘너 가며 일 하고 버러먹을 사름보다 만히 생길터이라¹³⁸⁾ [강조는 인용자]

서두에서부터 개인의 노동윤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임을 주장하는 <독립신문>의 일관된 관점을 보여주는 이 논설은, 정부가 의식(衣食)을 인민에게 줄 수는 없으며 다만 인민에게 생애(生涯)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소유하게 된 재산을 다른 이들이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법률과 규칙을 엄격히 세우는 것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법률과 규칙을 통해 스스로 불법적으로 무명잡세를 걷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또 유의유식하는 이들이 여러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여야 사람들이 직접 벌어들여 먹고 살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

138) “논설”, <독립신문>, 1898년 4월 9일.

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법률과 규칙의 기강을 엄히 세울 때, 인민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재산이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도리 것이며, 만약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의유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을 통해 형성한 인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법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로크(John Locke)의 소유권 이론의 기본 명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독립신문>의 논설은 ‘조선병’을 치료하고 개인의 성실한 노동과 생업을 독려하기 위한 맥락에서 정부가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것이 개인을 넘어 대안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 또한 단순한 개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 내용적으로 이미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담론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흥는 말이 쓸 값이 빛사서 견딜수가 업다 흥니 이십년 전에 비흥면 물가가 고등 흥은 놀나온지라.....무슴 스업이던지 생애 흥는 사람은 오늘이나 이십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다몬 어려운 사람은 향산 업시 유의 유식흥는 사람들이라.....유의유식흥는 사람을 위 흥야 말흥면 물가 고등흥는니 것이이긋치 불행이로되 본래 사람이 각기 다 제버리 흥야 제가 먹을것이요 놀면서 남의 덕으로 살나 흥는 것은 금슈 만도 못흥 인생이라.....부지런 흥던 사람은 더 부지런 흥고 게으르던 사람은 부지런 흥야 무슴 생애던지 힘써서 상봉 하솔¹³⁹⁾흥고 의식을 주선 흥락 하락 흥면 첫째 집안이 넉넉흥고 백성이 업을 붓잡아서 나라는 자연히 부강흥게 될터인즉 물가 고등 흥 것이 실상 재앙이 아니라 도로혀 국가에 복인줄 아노라¹⁴⁰⁾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 속에서 생애(生涯)하는 사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유의유식하는 이들은 물가가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의

139) 상봉하솔(上峰下率)은 위 사람을 돌보고 아랫사람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140) “물가 고등이 무방”, <독립신문>, 1898년 4월 7일.

유식을 비판하고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독립신문>의 관점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생업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또한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더 부지런해져서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면 이것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직무와 인민의 직무, 물가가 오를 때의 상황 등 노동윤리와는 다른 주제로 전환될 수 있는 논설에서도 <독립신문>의 비판의 대상인 ‘조선병’과 생애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노동윤리를 통한 개화와 자강이 주장되고 있으며, 그 만큼 <독립신문>에서 주장되는 ‘조선병’과 노동윤리의 확립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문과 교육

<독립신문>에서 ‘조선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논설에는 조선 안에 있는 인민이 학문이 없고 교육이 없어 잔약하고 어리석으며, 조선 사람들이 문명진보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못한 까닭은 학문이 없는 까닭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학문과 교육은 근대적 지식의 습득과 근대적 교육체계의 확립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보다 생각, 행실, 노동윤리, 가치관, 관습의 개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학문과 교육에 대한 전자의 의미 또한 지속적으로 <독립신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일차적인 의미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은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독립신문>은 당시의 개신교 세력과 그들이 세운 배재학당, 이화학당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본의를 알 것 같으면 이 교훈이들을 참 곱압게 녀이고 착 하고 스랑 하는 거시 이교에 근본인줄을 깨달을지라.....어느 교에서 이 예슈교와 갓치 사롬을 만히 텃하 만국에 보내여 조국의 돈을 드려 가며 온갓 교생을 다 하며 남의 나라 사롬을 이러케 간절이 꺾치며 도와주리요 멧서디스트 교회에서 조선 와서 대정동 배재 학당을 짓고 조선 절문 사롬들을 교훈 하고 계집 아해들을 위하야 이화학당을 배설 하고 부인 병원을 몬드러¹⁴¹⁾

의료와 교육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신교 계열이 세웠던 간접선교전략의 두 축으로, 그 중에서도 교육 사업은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와 <독립신문>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노동윤리와 생활윤리, 관습, 정부와 인민의 태도 등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독립신문> 또한 넓은 의미의 학문과 교육을 위한 대중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선사람’을 바뀌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교육은 강조되었다. 그 시발점은 비록 간접선교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 사업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을 받은 개화담론이 공식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사업과 당시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을 단순히 서구의 지식이 전달되었을 장소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을 강조하는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새 법과 새 학문, 새 도덕을 가르쳐 ‘조선병’을 극복한 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와 <독립신문>이 제시하는 교육이란 사실 일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이 외국과 통상한 후로 도금에 근 二十년이라 국세는 一보도 진보 못흘뿐외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글웃 되야 오날날 궂치 위급한 디경에 이르렀스니 그 리유를 궁구하면 불과시 정부에 그 사름이 업서서 황상 폐하의 성덕을 대양치 못 흠 이로다.....일노 보거드면 대한에 귀한 것은 사름이라 다몬 브랄 것은 동몽 교육을 급히 성 하게 힘써서 새법과 새 학문과 새 도덕으로 새 사람들을 몬드논 슈밧게 업논줄 아노라¹⁴²⁾ [강조는 인용자]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언급되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독립신문>은 서구의 새로운 학문이 가르쳐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주자학의 경전을 외우도록 반복학습을 시키지만, 어떠한 기계나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생

141) “논설”, <독립신문>, 1896년 8월 12일.

142) “대한에 극 귀한 물건”, <독립신문>, 1899년 1월 21일.

산성이 있는 노동과는 관계없는 허학 만을 배우고 있는데,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부강한 이유는 교통이나 군사력에 활용될 수 있는 실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이 문명진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새 학문을 배우며, 또한 그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新)학교를 세워 이전의 나라의 진보와는 관련없는 이전의 학문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한다.

태서 각국은 여러 가지 학문과 기계를 일로 훑진대 동양 텃디에는 개혁이후로 당 초에 듯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 하던 바이라.....동서양을 물론 하고 개명에 진보코져 하는 나이들은 다토타 신학 新學학교를 설립 하고 날마다 새 학문으로 인재 교육 하기를 힘쓰는데 비록 본국의 전래 하던 학문이라도 쓸데 업는니 것은다 부리고 타국의 진선진미 한 새 법을 모본하야 아모쥬록 압흐로 나아가기를 궁구 하논지라.....세월만 허비 하지 말고 어서 속히 이 세계에 도흔 새 학문으로 국중에 있는 완고흔 구습을 통혁 하야 일신우일신 하게 하면 대한 전국이 유리 세계가 되리이다¹⁴³⁾ [강조는 인용자]

이 같이 실학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사람으로서 생산적인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노동윤리가 전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허학(虛學)을 버리고 실학(實學)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면서도, 실학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사람마다 놓고먹지 않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며 부국강병이 또한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결국 각 사람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라가 진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독립신문>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서양 각국의 부강함은 무슴 7똥이며 대한국의 빈약 함은 무슴 연고인고 하니 서양 각국은 실학을 숭향하야 문명흔 기계를 신발명흔 뒤으로 나라 형세들이 크게 떨쳐 세계 상에 몬져 진보흔 나라이 되고 대한민국은 다몬 허학만 숭상 하니.....부국강병 하논니 것이사 롭마다 각기 조끼의 호몸에 잇는줄은 사름 사름이 다 깨닷지 못하고 부국강병 하기가 깊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줄노는 생각들 하야.....사름들이 각기 호못기몬 스스로 보호르랴 하거 드면 놓고 먹는 쥬이 업슬것이요 놓고 먹는 쥬이 업거드면 각기 부요할 것은조연히 그 가

143) “논설”, <독립신문>, 1899년 9월 20일.

온대 있슬지라..... 본국에 학교를 여러 곳에 세우고 촌 촌 국민들을 갈으치거드면 대한도 또한 자연히 문명 부강 훈 경계에 이를지니¹⁴⁴⁾ [강조는 인용자]

3) 사회적 관습

당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영향을 미친 사회적 관습의 개혁에 대한 주장을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신문>에서도 축첩, 조혼, 제사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일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학교로 대표되는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개화의 매개체에 개신교 세력이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파되었던 개화담론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노동윤리와 사회적 관습의 개혁을 중심으로 <독립신문>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개신교 세력의 선교전략의 결과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인용문은 굿, 무명잡세, 기생, 신학교와 신문을 막거나 싫어하는 일, 그리고 일 년 동안 노동하여 번 것을 가지고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을 위해 소비하는 일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관습들이 <독립신문>의 개화의 관점에서 비판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유지각 훈 시골 친구의 글을 좌에 기재 호노라 경계조¹⁴⁵⁾는 대개 우리 대한민국 문명 진보 호는 일에 대 호야 슈년이래로 분명히 목격 호는 바에 각 시골 개화 형편은 가히 자랑 홀몬 호온 고로 그 스건을 대강 드러 양포 호노라 첫째는 굿 호는 일.....경 넘는 일.....복구¹⁴⁶⁾ 기다리는 일.....구습 자랑 호는 일.....관행 혼금¹⁴⁷⁾ 호는 일.....기생 성 호는 일.....무명잡세 밝는 일.....신문 슬혀 호는 일.....신학교 막는 일.....박송아 일년 동안에 버려서 공용외에 허비 호는 일.....대개 우리 나라 백성은 본래 사름마다 산업홀줄을 물으는 고로 훈 사름이 번 것을 가지고 혹 스오명 식구도 살며 혹 팔구명 식구도 살거늘

144) “논설”, <독립신문>, 1898년 6월 14일.

145) 경계자(敬啓者)는 ‘삼가 아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문체 서두에 쓰이는 말이다.

146) 복구(復舊)

147) 혼금(閹禁)은 관아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흠을며 이 곳흔 허비를 녀년 세세로 감당 호오니 필경에 여디가 업서류리 개걸호는 백성이
주연이 만흔 것은 다름 아니오 다문 이 잔풍 패속 가운데서 조차 나오느줄을 확실히 아노
라¹⁴⁸⁾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어떤 사람이 무지한 상태에서 시골의 개화 형편을 자랑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간접적으로 사실상 거의 개화되지 않은 조선의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시폐개탄론(時弊慨歎論)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기사는 굶는 일, 귀신을 쫓기 위해 경을 읽는 일, 혼금하여 관장행차(官長行次)에 체면을 차리는 일 등 다양한 영역의 구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습들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생업을 가지고 산업(産業)하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명잡세를 받는 일이, 열심히 생업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을 빼앗아 감으로써 노동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비판되는 것과 같이 일 년에 한 차례씩 다양한 제사나 굶는 일은 일 년 동안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사회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소비함으로써 산업의 진보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구습에 대한 비판에서도 기본적인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는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모르고 생업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벌어들인 돈을 각종 쓸데없는 관습을 지키기 위해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여져서 유리개걸(遊離丐乞)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중요하나, 더 나아가 각종 전근대적 사회적 관습의 불필요한 유지로 인해 들어가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구습의 개혁을 주장하는 논리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번 것으로 4-5명이나 8-9명의 식구들이 근근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식구들이 모두 생업을 가지는 동시에 쓸데없는 잔풍패속(殘風敗俗)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는 풍습인 조혼을 반대하는 <독립신문>의 논리 또한 한 개인이 생애 하는 법을 배워

148) “시폐 개탄론”, <독립신문>, 1898년 10월 22일.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노동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래의 논설을 통해 볼 수 있다.

어린 9해들의 점점 자라는 기관이 문져 상 하여지고 기혈의 운동 하는것이이러
로든하야.....그 낮빛을 본즉 걱정과 슈심하는 빛을 흥상 띄우고 그 몸동이를 본즉 혼속귀
드는 형용이 반다시 낮하나서 학문과 밋 일 하는대 라태함을 스스로 내고 동작 하고 생각
하는대 춤고 견뎌를 튕히 못 하야.....열심으로 힘쓰고 가다듬어 그 학문과 스업이 성취 하
기에 이르는 때에는 년치가 주연 二十이나 三十에 이를지니 그제는 신체도 강장 하며 지
식도 발달 하야 조국의 살림 사리와 안해의 의식 깎지 스스로 넉넉히 판비¹⁴⁹⁾ 흘만한 연후
에 혼인을 비로쇼 행하나니¹⁵⁰⁾ [강조는 인용자]

위의 논설은 어린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면 우선 신체적으로 아직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며, 나
태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일을 하는데 필요한 참고 견뎌를
감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남자로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학문
과 사업을 성취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신체와 지식이 장성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의식(衣食)까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함을 들어 조혼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른으로서 자신뿐 만 아니라 아내를 생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책임
질 수 있을 시기를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나타
나기도 하지만 조혼이 유의유식하는 양반남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제도로
서 기능하고 있다는 <독립신문>의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별다른 노동이나
생업을 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양반남자들의 축첩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을 <독립신문>은 지적하고 있으며, 노동윤리의 측면뿐 아니라
일부일처제를 중시하고 첩을 둔 이들을 교인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던 당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이 <독립신문>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논설은 축첩문제에 대해서 축첩을 하는 남자나, 첩이나, 그 자식
모두 천대를 받아야 하며, 남편은 마땅히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며 생업을
통해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을 드

149) 판비(辦備)는 마련해 준비하다를 의미한다.

150) “논설”, <독립신문>, 1899년 10월 7일.

러내고 있다.

우리 생각에 사나히를 음행에 범 하게 하는 인생들은 다만 이 세상에만 천홀뿐 아니라 후생에 그 사나히와 꺾치 디옥에 갈터이요 이런 사롭의 조식들도 이 세상에 천대를 받을 터이니.....이 말들은 후에 온 올흔 사롭이 되랴거든 첫째 조그 몸들 브터 올코 정결케 가지고 내게 뜯닌 안해와 조식들을 실상으로 스랑 하고 다시 음행을 하던지 첩을 엿는다던지 첩이 된다던지 하는 일이 하며 만일 첩을 엿는 사롭이던지 첩이 되는 계집들은 세계에 데일 천흔 사롭으로 대접을 하여야 맞당 하더라¹⁵¹⁾

4) 술, 담배, 위생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교인들과 조선 사람들에게 계주론을 지어 술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해악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경계하였고, 담배 또한 백해무익한 물건임을 들어 금연을 주장한 바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조선 사람들의 양태를 비판하고 노동윤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술, 담배가 노동윤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당시 개신교의 세례문답에도 등장하듯이 개신교회의 윤리적 강령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 담배의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다고 여겨진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비해 <독립신문>에서는 술, 담배의 문제를 적게 언급하지만 위생의 측면에서 해가 된다는 근거를 들어 술,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와 술’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아래의 기사는 담배와 술이 인민의 위생에 해가 되기에 정부에서 특별세를 부과한다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언급과 비교하면 강하지 않은 비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화에 있어 술, 담배와 관련한 문제를 제시한 세력이 너무나 분명하게 개신교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립신문>의 입장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술과 담배가 이렇게 인민의 위생에 큰 해가 되는 고로 문명한 나라 정부에서들은 술과 담배를 검흔랴고 하나 술과 담배를 먹는 인민이 만코 또 인이 박여 갑자기 금 흡슈가

151) “논설”,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

업는고로 담배와 술은 달은 물건 보다 세를 특별히 만히 밧아서 갑이 빗싸게 혀야 사먹는 사릅이 초초 저경지게 혀자는것이요.....대한에서도 술과 담배를 먹는 사릅이 만아서 그 혀를 몹시 밧으니 대한 정부에서도 인민의 위생을 위 혀야 초초 술과 담배를 아니 먹게 혀 방책을 힘쓰기를 밧으며¹⁵²⁾

술, 담배 문제에 있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강조하고 자주 언급한 것에 비해 <독립신문>이 술, 담배 문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한 반면,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신문>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위생론’은 날씨가 더운데 장마가 지속되니 물이나 과일 먹는 것, 그리고 빨래를 자주할 것과 아무리 더워도 허리와 배를 드러내지는 말 것 정도를 짧은 분량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립신문>에는 일상생활에서 조선 사람이 행하는 더러운 양태를 매우 자세히 언급하면서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몸가짐과 더불어 당시 조선의 더러운 길들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정부 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할 것에 대해 많은 논설과 기사들을 신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조선 사릅들을 위혀야 몸가지는 법을 말 혀노라 조선 사릅은 맵양 길에 다닐때에 입을 버리고 다니니 이거슨 남이 보기에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또 사릅의 몸에 대단히 해로운거시.....문명개화한 사릅들은 평시에 입 버리는 법이 업스니 조선 사릅들은 아모조록 입을 버리고 다니지 안키를 브라노라 길에서 손으로 코 푸는거시 대단히 천해 보이니 사릅마다 손 슈건을 가지고 다니는거시 맛당 혀고 손가락이나 소매나 오세다가 코 씻는거슨 세계에 천헌일이요.....목욕을 자쵸 흘쇼록 몸이 튼튼혀여지며 머리를 자쵸 감을쇼록 신병이 적은 법이니 쵸곰만 부지런 혀엿스면 아모라도 이런 것 혀기는 어렵지 아니하며 니를 쵸히 닦가 입에서 내암새가 아니나야 니가 쉬히 상 혀지를 아니혀고.....운동을 혀여야 기혈이 통 혀야 신체가 강건혀여지고 생각이 활발 혀며 쵸밀 혀야¹⁵³⁾ [강조는 인용자]

위의 논설은 길에서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것, 또는 손으로 코를 풀거나 소매나 옷에 코를 닦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지런히 이를 닦고, 머리

152) “담배와 술”, <독립신문>, 1899년 4월 19일.

153) “논설”, <독립신문>, 1896년 12월 12일.

를 자주 감으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신체와 생각에 모두 좋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같은 주장들은 우선 이것이 몸과 생각을 건강하게하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지만, 사실 생활의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서 개개인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조선병’에 걸린 ‘조선사람’을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근대인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위생상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넘어 <독립신문>이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게으르고, 생업을 가지지 않으며, 더러운 조선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벌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깨끗함을 지키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독립신문>은 개인의 위생과 함께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조선의 더러운 길에 대해서도 정부와 인민이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비롯한 조선의 길에 대한 <독립신문>의 묘사를 보면 동물과 사람의 오물이 길과 개천에 뒤엉켜 있고 그로인한 악취로 인해 외국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지방관들에게는 길의 정비와 개천의 오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시 길거리나 개천에 대소변을 보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활의식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한 직무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 사람이 다 조선에 와서.....오기 전 보다 더 천 하게 아는지라 첫째 그러케 생각 흘거시 삼 향가 조선 백성 사는 동리를 드러가 보거드면 첫째 더럽고 추운 냄새 깝둑에 외국 사람들이 지내 갈슈가 업고 돌재는 길과 개천이 혼 2지 되야 세계에 더러운 물건이라고는 모도 사람 다니는 길 가온대 씨여 잇스니.....어디던지 디방관들이 도회쳐에는 길을 정 하게 닦고 개천을 좌우로 파 더러운 물건이 흘러 내려 가게 하며 대 쇼변을 사람 다니는 길 거리에 보지 못 하게 혼거시 직무상에 데일 중한 일이라¹⁵⁴⁾ [강조는 인용자]

5) 여성 및 신분차별

154) “논설”, <독립신문>, 1897년 4월 2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여성교육과 신분차별금지에 대한 기사를 해석한 바와 같이, <독립신문>의 ‘조선병’이 겨냥하고 있는 비판의 대상은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를 하지 않고도 유의유식하며 여가를 허비하는 양반남자들이라 볼 수 있다. 여성과 신분의 차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논설들은 또한 조선의 전 인구 중에서 제대로 된 학문과 교육의 혜택을 받아 노동할 수 있는 이들이 여성과 상민을 제외한 양반남자들뿐인데, 이들 중에서도 유의유식하는 비율이 많다는 점에 대해 더욱 개탄하고 있음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이 몇 百년을 두고 내려오며 이상헌 풍속이 있는데 **첫재 반상의 분별이오 둘째는 남녀의 차등이라.....상놈이라면 아모리 나히 만코 덕이 잇슬지라도 초개긋치 대접 하며 쪼끔은 못맞당흔 일이 잇슬 디경이면 불문 시비 곡직 하고 잡아 오너라 끄러오너라 하며.....**녀인은 집안에 재산과 곱치 녀여셔 거내이불언외¹⁵⁵⁾라 깃흔 도장안에 가도아 두고 흐는일인즉 불과시 바누질과 음식지절이오.....**대한 사름을 二千萬을 쳐드래도 그 줌에 녀인과 상놈을 빼고 보면 전국 안에 일흠 사름들은 불과시 五분의 일 바긋 못 될터이니 엇지 나라이 진보하기를 볼오리오¹⁵⁶⁾**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립신문>의 신분과 여성 차별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구체적인 비판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의 핵심적인 비판인 생업 없이 유의유식 하는 ‘조선병’을 고치고 각 개인이 부지런히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이 <독립신문>에서 주장하는 궁극적인 문명진보를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본다면, 신분과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학문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생애(生涯)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명진보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면 할수록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문명진보가 가능케 될 것이라는 <독립신문>의 내적논리의 측면에서 이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이 같은 <독립신문>의 논리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도 동일하

155) 거내이불언외(居內而不言外)는 집안에 거하지만 말 하지 않음을 뜻한다.

156) “사람은 일반”, <독립신문>, 1899년 4월 26일.

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실제로 개신교 세력의 상민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신분과 여성차별 반대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서재필 또한 아래의 연설을 통해 개신교의 관점에서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조선의 현실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의스 제손씨가 우의로 연설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함이 무론 남녀 하고 이목구비와 심의 성정은 다 혼기지며 만물의 가운데에 데일 총명하고 신령 혼지라 동양 풍속이 엇지 해야 사나히는 기와 집과 굿다 하고 녀편네는 초가 집과 굿다 해야 남녀간에 같이 놓고 나진줄노 분별을 혼는지 극히 개탄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녀편네를 더생각 하시는 것이라 오날날 녀편네도 사나히와 굿치 학문으로 교육하고 녀편네도 사나히와 굿지 동등 권을 주주는 문제가 오히려 크게 붓그러움이라¹⁵⁷⁾ [강조는 인용자]

V.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조선병’, 그리고 개화민족주의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 당시 개신교의 교육사업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는 언급이나 서재필의 직접적인 개신교적인 발언 등이 <독립신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을 분석하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의 친 개신교적 성향,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며, 신용하의 지적과 같이 <독립신문>의 창간과 발간과정에서 온건개화파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아관파천 이후 내각이 바뀔과 함께 <독립신문>은 서재필의 개인적인 친 개신교적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신문>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또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점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57) “논설”,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

에서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많은 지면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 데 일호를 스월 일일에 비로소 발간하였는데 주장 허는이논 원두우 목스요 인출 허는일을 보살히논 이논 신통¹⁵⁸⁾ 의원이라 우리가 그 신문을 보니 허장에 여덟쪽 인데 크기는 독립신문보다 갑절이나 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요흔 말솜이 잇스니 춤 볼만 허야 누구던지 이 신문을 잘 보거드면 흥중에 모색 허거술 열 분 아니라 리익헌 일이 매우 만켓도다.....사름마다 만약 문명 개화에 진보코져 허면 이러헌 요흔 학문이 어대 잇스리오.....¹⁵⁹⁾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은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발간된 지 두 달 후에 장로교 계열에서 언더우드가 발간한 <그리스도신문>을 소개하면서, 신문구독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신문>의 크기를 <독립신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신문>이 어느 정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음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문헌 외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생업을 가지고 살아야함을 주장한 노동윤리가 나타난 <독립신문>의 영어논설에 대한 인용이나, 다른 국가에 의지하지 말고 자립심과 애국심을 길러야한다는 ‘독립협회’의 주장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주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인용에서도 <독립신문>과 상당히 가까웠음을 아래의 인용문들을 통해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새롭게 법률을 발표한 모임의 내용과 소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서재필의 공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을 담고 있다.

대한 정부에 여러 대신협판과 독립협회 회원들과 만민이 일제히 종로 거리에 모히여 여섯가지 의안을 돈드러 대황데 폐화끼 상쥬 허엇더니 곳 재가 허시고 또 축령으로 다섯가지 법률을 더 무런허샤 반포허신일은 이왕 우리회보에 기재 허엇거니와 이 법률이 전국 인민에게 대단이 관계가 되기로 그 십일도를 번역허여 모든 형제들노 알게허노라 데일요는 외국 사름에게 의지허여 붓쫓지 말고 관인과 백성이 동심 합력허야 전제허시논 황데의 권세를 견고케 할 일.....¹⁶⁰⁾

158)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William Benton Scranton) 의원(醫院)을 의미한다.

159) “그리스도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4월 7일.

제손씨가 대한에 나온지 삼년 동안에 백성을 위하여 유조한 일을 만히 하였는데 첫째는 독립신문을 문드러 정부와 백성이 일심이 되여야 나라 이 참 조주독립이 되는것과 사름마다 조유하는 권리가 잇는거슬 설명 하였고 둘째는 각 학교에 다니며 충군 애국하는 도리와 문명개화하는 리차를 힘써 연설하여 사름의 흥중에 모색한거슬 열게 하였고¹⁶¹⁾

그리고 아래의 인용문들을 통해 협성회, 독립협회, 청년회와 광무 협회, 배재학당 등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독립협회를 언급하며 평가한 부분과 <독립신문>의 서재필이 이 같은 당시 모임과 학교들을 평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독립신문>, 독립협회와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비롯한 개신교 세력 간의 상호인정과 지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모 나라이든지 개명이 되려하면 백성이 문져 열닌후에야 그나라이 늑의게 슈모를 밧지 안는법이라 근래에 대한국 중에 협성회와 독립 토론회와 청년회와 광무 협회라 하는회가 초초 생긴후에 본국 소정과 외국 형편을 서로 강론하더니 백성의 문견이 대단이 열닌지라¹⁶²⁾

독립신문사장 제손씨가 연설하기를 나는.....이전에 회라 하는니 것은편쌈 하는회나 아(亞)조 거름으로 향음주례 하는 회 뿐이라 대저 회라 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 상이나 데일 요긴 한 거싱요 학문 상과 지혜와 생각과 의견과 경제 상에 가장 유조 한것이라 배재학당에 협성회와 독립관에 토론회가 크게 아름다오며 충청남도 공주 쌍슈 성하에 독립협회가 또한 극히 조흔 일이더라¹⁶³⁾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의 문헌 분석을 통해 ‘조선병’이라고 요약되는 당시 조선인들의 개인 윤리적, 사회 관습적 폐해가 거의 동일하게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구한말의 프로테

160) “열한가지 법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11월 9일.

161) “의사 제손씨가 환국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5월 18일.

162) “삼호만세”,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8년 3월 16일.

163) “논설”, <독립신문>, 1898년 2월 19일.

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이 제시하였던 개화담론에 상당 부분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슬프다 대한 사림의 성품은 네 가지 큰병 근원이 두골 속에 깊이 드럿시니 데 일은 의지하여 힘입으랴는 무음이요 데 이는 가비야히 하고 능멸 하는 무음이요 데 삼은 의심하고 염녀 하는 무음이요 데 스는 신과 이가 업슴이라¹⁶⁴⁾ [강조는 인용자]

구체적으로 게으름, 놀고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혹은 관리로서 무명잡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태도 등을 요약하는 ‘조선병’은 위와 같이 자주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또한 민족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조선병’의 주장에 생업, 경제적인 자립의 문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가 그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윤리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다양한 의미에서 공통적인 핵심적인 주장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 나타난 다양한 차원의 개화담론을 분석할 때, 상대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종교적인 근거에 기반 해 반대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독립신문>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독립신문>에서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조선의 개화를 정치, 사회, 경제,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대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애하는 것, 생업을 가져야 한다는 노동윤리의 확립을 통한 사회와 나라의 문명진보, 개화라는 핵심적인 논리구조는 동일하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이 다소 다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게으름, 생활력의 결여, 민족적 자립

164) “논설”, <독립신문>, 1898년 1월 18일.

심의 결여, 술, 담배, 노름, 축첩, 조혼, 무명잡세 등의 실태가 비판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생업을 가질 것, 학문과 교육에 힘쓸 것, 안식일을 잘 지킬 것, 금주, 금연하며 생활에서의 위생을 지킬 것, 제사와 미신, 축첩과 조혼,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을 금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시한 구한말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수하고 엄격한 윤리적 강령은, 이미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확립된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 행위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확인해야¹⁶⁵⁾하는 필요성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감리교의 세례문답에는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술, 담배, 안식일, 첩 문제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담배나 조혼금지, 무명잡세와 같은 부분은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강령이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윤리적 강령과 조선의 개화를 연결 짓고 있지만, 무엇보다 생업의 노동윤리를 통해 전반적인 강령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고, 민족적인 자립심이 없으며, 스스로 생업을 가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안식일에는 신앙모임에 전념하는 한편 평일에는 생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동하여야 하고, 조혼은 생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술, 담배, 노름, 축첩 등은 유의유식하는 양반남자들이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적 관습의 측면에서도 제사와 미신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지만, 노동윤리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소비를 매년 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으며, 신분과 여성차별의 문제 또한 학문과 교육을 통해 가르침으로써 노동이 가능한 이들을 차별하고 방치한다는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는 노동하지 않고 유의유식하는 이들이 많은 것,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술, 담배, 게으름, 제사, 축첩 등의 문제를 동시에 비판하고, 조선 사람들이 노동윤리와 배치되는 습관과 관습을 버리고 몸가짐과 위생을 포함한 생활을 통제하고, 각자의

165) 류대영, 2003, p.113.

생업에 충실할 때, 산업이 발전하며, 자연히 나라가 부강하여 개인도 자립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나라 또한 자주독립할 것이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이 개화민족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독립신문>에서 지적하는 ‘조선병’과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독립신문>은 종교적인 근거를 배제한다는 점과 정부와 인민의 직무, 또한 학문과 교육의 목적, 사회적 관습 개혁의 목적, 여성과 신분차별 금지의 사회적 유용성 등을 더욱 강하게 내세운다는 점에서 <독립신문>은 생업의 노동윤리를 구체적인 개화담론에 포함시키고 노동윤리의 영향을 받은 개화 담론이 이후 정치적 개화민족주의에 지속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정부와 인민의 역할, 학문과 교육의 목적은 모두 ‘조선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동윤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무명잡세를 걷지 않고 법률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은 인민들이 노동을 통해 벌은 재산을 잘 지켜야 하기 위함이라는 언급과 인민은 그러한 정부의 법률이 유의유식하는 ‘조선병’을 치료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되는지, 또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다는 주장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립신문>이 새 학문과 교육을 통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각과 새 도덕으로 무장된 새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이 새 사람은 분명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나라의 부국강병이 이러한 한 사람의 교육에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정부의 직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생계를 구하는 법’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¹⁶⁶⁾에서 <독립신문>에 나타난 조선병과 개화담론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드러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유견문』에서 드러나는 생애하는 것, 노동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의 직무

166)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pp.181-186; pp.303-315.

를 소개하거나 생계를 구하기 위한 서양의 직업을 소개하는 맥락 속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물론 유길준 또한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이 각자 생업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각 국민이 생계를 꾸려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빈약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함을 지적하고 중요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 직분,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소개하는 목적 속에 부차적으로 드러나는 언급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서유견문』의 논의는 개화된 서양 국가들의 진보한 모습을 소개하고 조선의 개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신문>에 드러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개화에 대한 주장은 유의유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조선의 상황(조선병)을 개선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나타나는 노동윤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조혼, 축첩, 술과 담배, 제사 문제, 여성 교육의 문제 등은 사실 『서유견문』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은 충분히 주장될 수 있다.

요컨대,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은 이미 18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개신교의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선교전략과 현실의 삶을 통제하고 규율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의식적인 전파가 조선의 개화담론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에는 생업의 노동윤리가 확립되고 유의유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산업과 나라가 발전하며, 조선도 부국강병과 문명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개화 민족주의적 지향이 이미 담겨있으며 <독립신문>이 이러한 개화담론을 공식화하고 지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웰스의 윤리적 민족주의(ethical nationalism)는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내면적인, 혹은 윤리적인 자기 개조를 통해 문명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으로 당시 개신교의 영향력

을 정리하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핵심적인 주장을 통해 볼 때, 내면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계몽과 변화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독립신문>에서 제시되었던 위생과 관습, 그리고 생활상의 다양한 규율은 결국 개인의 노동윤리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었고, 개인의 노동윤리는 상당히 ‘노동’이라는 행위적인 차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주장이며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노동할 때, 사회와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논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매우 자유주의적¹⁶⁷⁾인 동시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논리이다. 오히려, 다양한 윤리적인 자기개조에 대한 주장은 생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으로 조선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차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의 윤리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력을 윤리적 차원, 내지는 문화적인 영역의 자기개조라는 의미로 한정지음으로써 사실상 매우 노동행위를 강조하고, 개개인의 경제적인 활동이 물질문명의 발달과 부국강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았던 개화담론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개화담론이 개화민족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국권 상실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후의 개화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안창호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전체적 구도를 크게 위정척사파로부터 시작되어 국권상실 이후 폭력을 수반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민족주의와 일찍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개인과 사회의 개화를 이루는 것이 조선이 생존할 수 있는 방도라고 보았던 개화민족주의로 나눈다고 볼 때, 1905년 이전에 개화민족주의라는 주장의 내용은 <독립신문>을 통해 공식화되고 ‘조선병’과 노동윤리로 정립되었음을 기억할 때, 이때 이미 상당히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담론으로 전파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167) 정부는 인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인민이 노동을 통해 벌게 된 재산을 잃는 염려를 하지 않도록, 관리의 무명잡세는 혁파되어야 하며, 법률과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직무라고 주장한 독립신문의 주장은 로크의 소유권이론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민족주의는 개화민족주의와 저항민족주의 모두 저항적인 성격을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본 연구의 시기 설정이 가지는 함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생업을 가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후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으로 연결되는 개화민족주의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 계열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성, 직접적인 정치화 혹은 비정치화에 초점을 맞춘 웰스를 포함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화민족주의를 연구할 때, 여러 학교의 건립 등 실제 교육 사업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따로 강조하여 다루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담론비교분석을 통해 이전까지 ‘조선병’과 개화담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프로테스탄티즘과 노동윤리의 영향력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VI. 결론

By mores, I mean here what the Ancients meant by the term: I apply it not only to mores in the strict sense, what one might call *habits of the heart*, but also to the various notions that men possess, to the diverse opinions that are current among them, and to *the whole range of ideas that shape habits of mind*. Thus I use this word to refer to the *whole moral and intellectual state of a people*.....In the United States, religion not only regulates mores but extends its empire over intelligence as well.¹⁶⁸⁾ [강조는 인용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그가 발견한 미국 사람들의 도덕적인, 지적인 풍습(mores)을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면서, 미국 정치에 있어서 종교는 이 같은 마음의 습관을 통

168) Alexis de Tocqueville, Trans. by Arthur Goldhammer, *Democracy in America*, Library of America, 2004, pp.331-337.

제할 뿐만 아니라, 지성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토크빌의 마음의 습관이 미국인들의 매우 긍정적인 도덕적 풍습과 종교가 미치는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것이라면, <독립신문>의 ‘조선병’은 반대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을 지적함으로써 당시 조선 사람들을 일깨우고자 하였고, 이 같은 ‘조선병’에 대한 인식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선 1890년에 유길준에 의해 쓰여진 『서유견문』에서도 정부의 직분, 생계를 구하는 방법 등에서 노동윤리가 부국강병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소개되지만, 『서유견문』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들은 조선의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보다는 일반적인 서양 국가의 상황에 가까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개화의 구체적인 이슈들이 매우 개신교 윤리의 영향을 받아 중복된 점을 기억할 때,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한 개화담론에 대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담론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크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이 조선 사람들의 유의유식, 즉 스스로 생업을 가져 노동하지 않고 놀고먹는 상태에 대한 비판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동윤리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해석하였으며, <독립신문>의 창간과정과 서재필과 개신교 세력과의 친화성(affinity)을 차치하고서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유의유식을 비판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조선병’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도 동일한 생업(生業)을 가지는 것, 생애(生涯)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남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또한 <독립신문>의 이 같은 노동윤리에 대한 강조는 정부와 인민의 직무, 그리고 학문과 교육의 목적, 술, 담배, 조혼, 축첩의 금지, 여성과 신분차별에 대한 금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제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과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무명잡세를 없애고, 인민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을 다른 이들이 갈취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인민의 직무를 지켜야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학문과 교육을 통해 노동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술, 담배, 축첩, 조혼, 제사 등에 대한 반대는 사회적인 노동을 결과물들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개인적, 사회적 습관과 개인의 노동과 자립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금지라는 측면에서 노동윤리는 지속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신분과 여성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양반남자들이 주로 유의유식하며 노동하지 않고 상민과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많은 인구가 사회적인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각 개인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生計)를 책임지는 사회에 대한 추구에 기반 한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위생 문제를 함께 주장함으로써 개인적 생활의 규율과 예의(manners), 자기통제와 규율에 대한 주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이 같은 생활의 습관이 뒷받침되어 노동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신문>의 많은 개화담론을 그 주장의 단어와 표면적인 주장의 급진성에만 주목하거나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단어나 개념들을 서구 정치사상적 기준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그 역사적 맥락과 괴리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그만큼 <독립신문>에는 매우 근대적이고 급진적인 개혁과 개화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개화에 대한 주장들도 ‘조선병’과 노동윤리라는 핵심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풀어낸 부분으로 보지 않을 때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또한 <독립신문>의 개화담론에 영향을 미친 많은 윤리적 개화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선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노동윤리의 영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조선의 인구 중 너무나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유의유식하고 있는 실태가 반드시 치료되어야할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지적된 ‘조선병’이 조선의 문명진보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라는 인식 속에서, 양반과 상민 이하의 모든 신분과 여성을 포함한 각 개인이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동할 때, 자연히 사회, 산업,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요해지고 군사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문명진보와 부국강병이 각 조선 사람들의 생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논리가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개화담론의 논리적 구조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당시 <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주장된 개화담론의 표면적인 모습은 웰스의 윤리적 민족주의 개념과 같이 상당히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개인 내면의 개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내면의 개조와 교육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노동하는 개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부강과 문명진보를 이룩해내야 한다는 이미 매우 정치적 지향을 가진 담론이라는 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웰스의 윤리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개화담론에 대한 영향력의 일부만을 짚어낸, 또한 그 현실적 의미를 너무나 다양한 상황적 서술로 인해 지워버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세내적금욕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조선에 미리 들어와 있던 천주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에 대한 사례를 보고 교육과 의료라는 간접선교방식을 채택하였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종교문제에 대해 외압을 가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천주교보다 정교분리에 힘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조선에 개신교가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로 여겨진다. 교육과 의료사업 모두 간접선교방식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시작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사업은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에 드러난 개화담론을 전파하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훈육할 수 있었던 장으로 기능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당시로서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은 당시 개신교 계열의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개화담론을 전파하였던 주요한 두 언론매체였으며, 이 중에서 <독립신문>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민간언론으로서 활동하고, ‘조선병’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을 받은 개화담론을 공식화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대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화담론이 1905년 이후 저항민족주의와

개화민족주의로 크게 지속되는 한국 민족주의에서 개화민족주의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담당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개화담론의 흐름은 1907년 이후 안창호에 의해서 개화민족주의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띠며 지속되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었던 ‘조선병’과 노동윤리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은 이미 18세기에 존 웨슬리의 감리교의 윤리적 강령이 미국에 전파되어,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개신교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서구의 국가에서 등장한 금주운동(temperance movement), 그리고 도덕적 갱신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감리교의 윤리적 강령은 술 취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 채무, 고리대금, 화려한 옷차림 등 생활의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규율과 통제로 나타나고 있다.

Wesley's rules were exhortations to avoid evil, do good, and observe the sacraments. But they may also be understood more broadly as a set of norms that proscribes particular forms of excessive or exploitive behavior and promoted conduct that benefited or sustained the Methodist Movement. Methodists were instructed to avoid profanity, drunkenness, quarreling, brawling, gossip, ornate clothing, indebtedness, hoarding, and tax evasion, as well as "giving or taking things on usury" and speaking ill of magistrates and ministers.¹⁶⁹⁾

이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적 강령은 베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학적 교리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는 목회적 권고사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이후, 특히 미국으로 건너가 18세기에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당히 강한 윤리적 강령의 형태로 정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현세내적인 윤리적 강령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19세기말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새롭게 담배와 조혼까지를 금지하기 시

169) Dee E. Andrews, *The Methodists and Revolutionary America, 1760-1800: The shaping of an evangelical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93.

작하였고, 무엇보다 일하지 않고 놀며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조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의 '조선병'과 개화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독립신문>이 출간되고, 잠시 폐간되었던 1905년까지의 시기에,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개화담론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은 노동하는 인간으로 개조시키기 위한 의도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고, 이것은 1905년 이후의 실질적인 국권상실 이후 개화민족주의로 연결되어 의미 있는 정치적 분파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영향력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차 문헌

- 한국감리교사학회. 1986. <조선그리스도인회보>.
한국감리교사학회. 1986. <대한그리스도인회보>.
독립신문영인간행회 편. 1991. <독립신문>. 갑을출판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84. 『조선감리회연회록』.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 선교보고: 연회보고, 1847-1900년』.
명동천주교회. 1984. 『서울교구년보1:1878~1903』.
명동천주교회. 1984. 『서울교구년보2:1904~1938』.

● 2차 문헌 (단행본)

Wells, Kenneth. 1990. *New God, New Nation :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86-1937*.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Andrews, Dee. E. 2000. *The Methodists and Revolutionary America, 1760-1800: The Shaping of an Evangelical Cultur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Cracknell, Kenneth and White, Susan J. 2005. *An Introduction to World Method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cqueville, Alexis de. Trans. by Goldhammer, Arthur. 2004.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 Library of America.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안드레 슈미드.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유길준. 허경진 옮김. 2005. 『서유견문』. 서해문집.

- 김영작, 1989.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사상과 현실』. 청계연구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독립신문 강독회, 2004. 『독립신문, 다시읽기』.
 푸른역사.
- 유영렬, 윤정란, 2005.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 유동식 외, 1997. 『기독교와 한국역사』.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만열, 1980.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 _____. 1990.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 _____. 1998.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 _____. 2003. 『한국 기독교 의료사』. 아카넷.
- 막스 베버, 전성우 옮김, 2008.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 _____. 김현욱 옮김, 2009.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동서문화사.
- 신광철, 1998. 『천주교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 강인철, 2006. 『한국 천주교의 역사사회학: 1930-40년대의 한국 천
 주교회』. 한신대학교 출판부.
- 조광, 2010.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한국천주교회사1』. 분도출판사.
- 장동하, 2005.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 류대영, 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04. 『개항기 조선과 미국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2001.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커뮤니
 케이션북스.
-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1. 『서구 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태학사.
- 신용하 편, 1984. 『한국현대사회사상』. 지식산업사.

_____. 2006. 『독립협회연구: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 일조각.

윤선자. 2002. 『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 2차 문헌 (논문)

류영익. 1990. “1880~90년대 개화파 인사들의 개신교 수용양태”, 『진단학보』. 제70권.

조영렬. 2003. “초기 한국기독교도들의 사회개혁사상 : <조선크리스도인회보>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건대사학』. 제10집.

김영민. 2004.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문과 한국 근대서사문학:<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27.

옥서준. 2008.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에 나타난 서구 인식 양상 연구:독립신문과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그리스도신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국문학 석사학위논문.

류대영. 1998. “한말 미국의 대한 정책과 선교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9.

_____. 2005. “한말 기독교 신문의 근대국가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2.

_____. 2008.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9.

유기창. 2003. 「한국 초기교회사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석사논문.

이광린. 1975.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39호.

조지형. 2009. “1906년~1910년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과 그 지향”, 『국어문학』. 제46권.

김도형. 2003. “대한제국 초기 문명개화론의 발전”, 『한국사연구』. 제121호.

홍원표. 2003. “독립협회의 국가건설사상: 서재필과 윤치호”, 『국제

정치논총』 제43집 4호.

● 웹사이트

www.mediagaon.or.kr (미디어가온 고신문서서비스)

independent.culturecontent.com (서재필기념회)

Abstract

The Protestant Ethic in the Late
19th Century in Korea and
Enlightenment Nationalism (1896-1900):

Chosun Christian Journal and *The Independent*

Inhwan O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Protestant Work Ethic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lightenment discourse of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n influence that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the Enlightenment discourse, by comparing both the common emphasis on Work Ethic and ethical doctrines in two Korean newspapers, *Chosun Christian Journal* and *The Independent*, published in 1897 and 1896 respectively.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the Protestant Work Ethic can be found in the word 'Chosun Syndrome' in *The Independent*, which seriously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opulation did not make their own living by work, but relied on noble relatives or wasted their time in drinking and other

traditional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smoking, gambling, and keeping concubines.

Several Enlightenment ethical doctrines were made in the *Chosun Christian Journal*, ranging from temperance to abolishing traditional customs such as early marriages and ancestral rites. Despite the variety of ethical doctrines, their main purpose of ethical doctrines ultimately converges on the emphasis of Work Ethic as the means to build a civilized nation. This study reveals this very aspect to have been combined with the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Independent*, the most widely-known newspaper in Korea during this period. Protestant Work Ethic seems to have affected the birth of the word 'Chosun Syndrome' itself and the ethical doctrines as a cure for 'Chosun Syndrome' in *The Independent*. 'Chosun Syndrome' was the context in which ethical doctrines were strongly urged on the readers of *The Independent*. For example, in *The Independent*, even the issues of class and sexual discrimination were raised in this context to encourage more diligently-working citizens in Korea.

Since the discourse of working citizens for a strong nation can be shown in other non-Protestant articles, for instance, *Essays on the West Civilization* written by Kil-Jun, Yu, an early Korean intellect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Enlightenment of Korea, it is not persuasive to contend that the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Independent* was solely influenced by Protestant Ethic. However, the perception of 'Chosun Syndrome' as a serious problem of Korea is barely seen in *Essays on the West Civilization*, as the main purpose of *Essays on the West Civilization* was to introduce the Western Civilization.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the general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Independent*, the

influence of the Protestant Work Ethic was diffused to the Korean masses. This aspect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of both Korea's Ethical discourse and Christian Nationalism. Although Kenneth Wells has defined Christian Nationalism as ethical nationalism, a nationalism which focuses on ethical and inward individual reconstruction in order to construct a strong nation, he simply chronologically depicted the practical activities of Korean Christian groups and celebrities, failing to capture the discursive path by which Protestant Work Ethic affected 'Chosun Syndrome' and the Enlightenment discourse in *The Independent*. The Enlightenment discourse was later succeeded by Enlightenment nationalism, in contrast with the Resistance nationalism, the other stream of Korean nationalism.

As the Enlightenment nationalism and Resistance nationalism are two distinct streams of Korean nationalism that lasted during the 20th century, it is meaningful to assess the influence of Protestant Work Ethic ideas on the early Enlightenment discourse as the prototype of Enlightenment nationalism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studies in Korean nationalism.

Key Words : *Chosun Christian Journal*, *The Independent*, Protestantism, Work Ethic, 'Chosun Syndrome', the Enlightenment discourse, Enlightenment Nationalism, Ethical Nationalism

Student Number : 2009-22819